

An Study on Analyzing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ultural Resources
in Goyang City

고양시 문화자원 현황 및 특성분석 연구

권선영
황설화

An Study on Analyzing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ultural Resources in Goyang City

고양시 문화자원 현황 및 특성분석 연구

연구책임자

권선영(고양시정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황설화(고양시정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위촉연구원)

발행일 2019년 11월 15일

저자 권선영, 황설화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89636-38-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고양시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고양시 문화환경	11
제1절 중앙정부와 고양시의 문화정책	13
제2절 고양시 지역 문화환경	29
제3장 고양시 문화자원 현황 분석	39
제1절 문화자원 조사 틀	41
제2절 역사문화자원 분포 현황	45
제3절 예술문화자원 분포 현황	59
제4절 영상예술자원 분포 현황	81
제5절 생활문화자원 분포 현황	88
제4장 고양시 문화자원 특성 분석	101
제1절 고양시 문화자원의 유형별 특성	103
제2절 고양시 문화자원의 지역별 특성	10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1
제1절 결론	113
제2절 정책 제언	116
참고문헌	119
Abstract	123

표 목차

[표 1-1] 문화관련 주요 법률 및 지방 조례 비교	5
[표 2-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특징	17
[표 2-2] 민선 1기 문화정책	19
[표 2-3] 민선 2기 문화정책	20
[표 2-4] 민선 3기 문화정책	21
[표 2-5] 민선 4기 문화정책	22
[표 2-6] 민선 5기 문화정책	24
[표 2-7] 민선 6기 문화정책	25
[표 2-8] 민선 7기 문화정책	26
[표 2-9] 고양시 문화 관련 조례 및 규칙 현황	29
[표 2-10]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체계	32
[표 2-11]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건수 순위	33
[표 2-12] 경기도 내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기초자치단체	34
[표 2-13] 기초자치단체 문화기반시설 수 순위(상위 11개 시군구)	35
[표 2-14] 기초자치단체 생활문화시설 수 순위(상위 10개 시군구)	36
[표 2-15] 인구 50만 명 이상/미만 시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37
[표 3-1] 주요 조사 지표	44
[표 3-2] 역사문화자원 조사 지표	46
[표 3-3] 고양시 문화재 현황	46
[표 3-4] 고양시 지역별 문화재 현황	47
[표 3-5] 고양시 박물관분포 현황	49
[표 3-6] 고양시 박물관 현황	51
[표 3-7] 고양시 박물관 직원 현황	52
[표 3-8] 고양시 박물관 관람인원 및 운영프로그램 현황	53
[표 3-9] 고양시의 무형문화재 현황	56

[표 3-10] 고양시 전통문화 보전 전수시설 현황	58
[표 3-11] 예술문화자원 조사 지표	60
[표 3-12] 고양시의 종합예술시설 현황	61
[표 3-13] 고양시 문예회관 규모	62
[표 3-14] 고양아림누리 규모	63
[표 3-15] 고양어울림누리 규모	65
[표 3-16] 고양시 공연장 규모별 현황	66
[표 3-17] 고양시의 공연장 현황	67
[표 3-18] 고양시 공연장 규모별 현황	69
[표 3-19] 고양시의 미술관 현황	70
[표 3-20] 화랑의 분포 현황	72
[표 3-21] 문학관 분포 현황	74
[표 3-22] 문학 관련 행사 현황	75
[표 3-23] 출판업 및 인쇄업 분포 현황	77
[표 3-24] 체인형 서점 현황	79
[표 3-25] 고양시 독립서점 및 북 카페 현황	80
[표 3-26] 영상예술자원 조사 지표	82
[표 3-27] 영화관 분포 현황	83
[표 3-28] 영화 제작 관련 사업체 현황	84
[표 3-29] 고양시의 방송사 수와 종사자 수	86
[표 3-30] 방송사 현황	86
[표 3-31] 방송사 및 방송 관련 사업체 현황	87
[표 3-32] 생활문화자원 조사 지표	89
[표 3-33] 고양시 공공도서관 권역별 현황	90
[표 3-34] 도서관 공간 특성 현황	91
[표 3-35] 고양시 공공도서관 운영인력 현황	95

[표 3-36] 고양시 작은도서관 인구 수 대비 권역별 현황	96
[표 3-37] 고양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현황	97
[표 4-1] 고양시 문화자원 유형별·지역별 특성분석	110

그림 목차

[그림 1-1] 도시환경육구	3
[그림 1-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8
[그림 2-1] 중앙정부와 고양시의 문화정책 시간별 비교	18
[그림 2-2] 고양시 문화정책 시기별 특징	27
[그림 2-3] 지역문화실태조사(지역문화지표) 추진경과	30
[그림 2-4] 시도별 인구 천 명당 평균 문화기반시설 수 현황	35
[그림 3-1] 문화자원의 조사 틀	43
[그림 3-2] 지역별 문화재 분포 현황	47
[그림 3-3] 문화재 위치 현황	48
[그림 3-4] 지역별 박물관 분포 현황	50
[그림 3-5] 박물관 위치 현황	50
[그림 3-6] 주제별 박물관 현황	50
[그림 3-7] 운영주체별 박물관 현황	50
[그림 3-8] 무형문화재 위치 현황	56
[그림 3-9] 전통문화 보전·전수시설 지역별 분포 현황	57
[그림 3-10] 전통문화 보전·전수시설 위치 현황	57
[그림 3-11] 종합예술시설 포함 공연장 위치 현황	68
[그림 3-12] 미술관 지역별 분포 현황	70
[그림 3-13] 미술관 위치 현황	70
[그림 3-14] 화랑 갤러리·경매소 위치 현황	72
[그림 3-15] 문학관·문학 행사 위치 현황	76
[그림 3-16] 출판업 및 인쇄업 지역별 분포 현황	77
[그림 3-17] 고양시의 서점 지역별 분포 현황	78
[그림 3-18] 고양시 서점 위치 현황	78
[그림 3-19] 체인서점·독립서점 위치 현황	80

[그림 3-20] 지역별 스크린 수	82
[그림 3-21] 영화관 위치 현황	82
[그림 3-22] 영화 제작 관련 사업체 지역별 분포 현황	85
[그림 3-23] 영화 제작 관련 사업체 위치 현황	85
[그림 3-24] 지상파 방송사 위치 현황	87
[그림 3-25] 고양시 공공도서관 설립시기별 누적 현황	89
[그림 3-26] 도서관 위치 현황	92
[그림 3-27] 공공도서관 수와 방문자 수 현황	93
[그림 3-28] 도서관 운영인력 현황	93
[그림 3-29] 고양시 작은도서관 운영주체별 현황	96
[그림 3-30] 고양시 작은도서관 권역별 현황	96
[그림 3-31] 작은도서관 공립·사립 위치 현황	97
[그림 3-32] 문화시설 인프라 지역별 현황	98
[그림 3-33] 청소년 문화시설 위치 현황	99
[그림 3-34] 청소년 문화시설 지역별 현황	99

요약

1. 서론

□ 연구 배경

○ 도시환경에서의 문화의 중요성 증가

-문화란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구조를 의미하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점차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세계는 지금 문화로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음. 낡은 폐시설이나 버려진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변형하여 지역의 활력을 찾고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창출하고 있는 사례들이 세계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역시 이에 해당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지역발전 계획 및 실행에서의 문화적 관점 강조

-국내에서도 지역의 성장과 발전방식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은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 행사 등을 건립 및 마련하는 ‘문화(예술)을 위한 환경’의 관점에서 문화환경에 대한 이해 이루어졌음.

-최근 들어 생활공간/양식의 환경을 문화화하는 ‘문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정책으로 과거에 비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어 ‘문화영향평가’제도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등은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사업에 문화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요 사례임.

○ 고양시 문화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적 인식 제고 필요

-고양시가 지속적인 문화적 성장을 위해서는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음. 시설 조성 및 조직 설치 위주의 정책보다는 앞서 언급한 ‘문화적 환경조성’ 위주의 정책으로서 관점 확대가 필요함.

-향후 추진될 고양시의 미래 문화정책이 시설 건립 등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의 공간과 시민의 생활양식을 문화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의 문화정책을 점검하고 문화자원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의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연구 목적

○ 고양시 문화정책 및 문화자원 현황 분석

-고양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고양시의 문화정책과 문화자원을 파악한 기초연구가 없었고, 문화자원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문화자원 조사 틀을 검토하여 고양시의 문화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양시의 문화자원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고양시 권역별 문화자원 특성 분석

-문화자원의 조사 틀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문화자원의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고양시 문화정책 발전방안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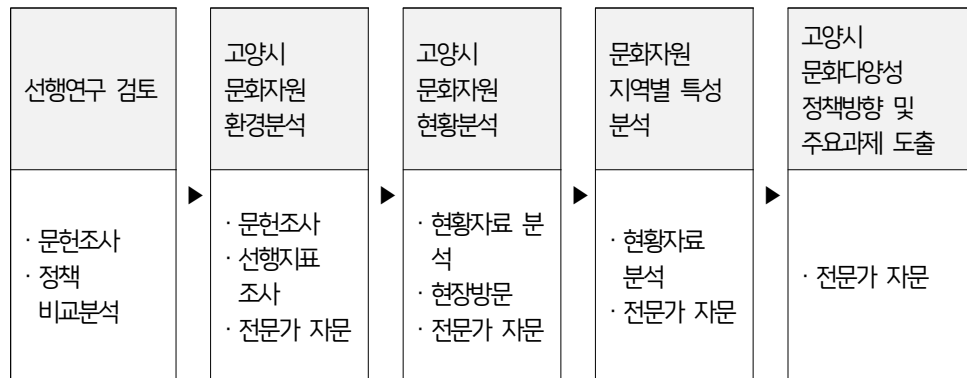
-고양시의 문화정책, 문화자원 현황 분석을 토대로 문화정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방향이 고양시의 지역성장과 지속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계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중앙정부와 고양시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환경 분석
- 문화자원 조사 틀 검토 및 조사 지표 구성
- 고양시 문화자원 현황 분석
- 고양시 문화자원 지역별 특성 분석
- 고양시 문화정책의 방향 및 정책적 제언 도출

○ 연구 절차 및 방법



2. 고양시 문화자원 환경분석

□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 김영삼 정부: 본격적인 문화정책 시작

- 문화산업분야가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문화정책의 범위가 체육문화, 청소년문화, 관광문화 분야까지 확대됨. 세계화 시대에 맞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의 개념을 구체화함.

○ 김대중 정부: '팔 길이 원칙' 예술지원정책

- 문화정책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정책 펼침. 문화산업을 21

세기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전망하고 적극 진흥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남북 문화교류의 햇볕정책. 2000년 문화예산 1% 달성함.

○ **노무현 정부: 다원적 문화정책**

- 소외계층, 시민단체, 여성문제, 청소년교육문제 등을 아우르는 다원적인 문화정책 펼침. 2004년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비전'을 발표함. 2006년에 '문화헌장'을 공포함. 문화의 산업적 가치에 주목함.

○ **이명박 정부: 문화산업(콘텐츠산업) 육성**

-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향유권의 확대함. 경제위기로 문화소비가 위축될 것에 대비하여 문화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목표를 세움.

○ **박근혜 정부: 문화가 있는 삶**

- 문화융성 관련 법안인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예술인복지법 개정함.

○ **문재인 정부: 사람이 있는 문화**

-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문화비전의 3대 가치로 설정함. 협력과 다양성을 강조하고 지역문화 분권 실현을 강조함.

□ **고양시의 문화정책**

○ **민선 1기: 고양 세계꽃박람회 개최**

- 1997년 5월 지방자치단체 규모로는 최초로 세계규모의 행사인 고양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함.

○ **민선 2기: 문화시설 건립**

- 1999년 고양시에 국제종합전시장(킨텍스)을 유치하였고,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을 건립함. 문화재보존 관리, 문화예술 관련된 축제를 개최함.

○ **민선 3~4기: 국제 규모 문화 인프라 확충**

-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도서관, 공연장 등 국제 규모의 문화 인프라

라 확충함. 지역축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고양문화재단 건립됨. 문화예술의 소프트웨어(고양시립예술단, 교향악단)와 관광자원의 관리와 홍보 추진됨.

○ 민선 5~6기: 문화소외지역 문화공간 조성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균형 발전과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시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 확대, 방송영상산업 육성함.

○ 민선 7기: 청소년 문화공간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역예술축제 개최 지속됨. 문화콘텐츠단지 추진, 문화예술 창작 지원,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문화도시 지정 추진함.

□ 고양시 지역문화환경

○ 고양시의 문화 관련 조례 및 규칙 현황

-고양시는 문화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생활문화와 지역의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함.

○ 지역문화실태조사로 본 고양시 문화실태

-고양시는 광역자치단체와 지역의 문화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가장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임. 문화기반시설 수도 수원시와 용인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지역문화기금 부재, 생활문화 시설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구 규모 대비 타 지역에 비하여 지역문화지수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3. 고양시 문화자원 현황분석

□ 문화자원의 조사 틀과 지표구성

○ 문화자원 조사 틀

- 국제, 국가, 지역단위의 문화자원 조사 지표를 검토하였고, 지역단위인 서울연구원(2015)의 문화자원 조사 틀을 중심으로 고양시에 맞게 설정하였음. 문화자원의 영역은 역사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영상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으로 구성되며, 문화순환주기에서 소비/참여를 제외하고 창작, 생산/보급, 전시/발표/전승에 따라 문화자원의 시설, 활동, 인력을 살펴보고자 함.

○ 문화자원 세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 출처
역사문화자원	문화재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명승, 등록문화재, 지방문화재,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고양시청>교육문화국>문화유산관광과
	그 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예술문화자원	종합예술시설	고양시 문예회관,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	시설 홈페이지, 2018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공연예술	공연장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취합 등록공연장 현황, 네이버 공연장 검색
	시각예술	미술관, 화랑, 갤러리, 경매소	2018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김달진미술연구소 전시공간 목록, 네이버 미술관, 화랑, 갤러리, 경매소 검색
	문학예술	문학관, 문학 관련 행사, 출판사/인쇄소, 서점	한국문학관협회, 네이버 문학관, 서점, 문학 행사 검색, 고양시청 홈페이지 행사캘린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영상예술자원	영화예술	영화관, 영화제작 관련 업체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경기도고양시기본통계
	방송예술	방송사, 방송 관련 업체	경기데이터드림 홈페이지, 경기도고양시기본통계, 신문기사
생활문화자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경기도데이터드림,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문화예술회관, 문화의집, 청소년문화시설	2018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 백선혜·라도삼·이정현,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와 분포특성』, 2015, pp.9-11.

4. 고양시 문화자원 지역별 특성 분석

□ 일산 동구의 특성

-일산 동구(동부)는 역사문화자원에서 향토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 예술문화자원에서 공연예술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남. 시각예술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나타남. 문학예술자원에서는 출판 및 인쇄업체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서점의 수도 일산 동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북 카페의 수도 일산 동구에 집중되어 있어 문학예술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남. 영상문화자원 역시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문화자원에서는 도서관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양시에서 동부권이 전반적으로 문화자원이 풍부한 편이었고, 인력과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일산 서구의 특성

-일산 서구(서부)는 역사문화자원에서 국악원이 주로 분포하고 있어 전통문화 보전 전수시설이 주로 입지해 있었음. 예술문화자원에서는 공연예술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시각예술자원에서도 특별히 두드러지는 특징이 없었음. 문학예술자원에서는 서점이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산 서구에는 1995년부터 위치한 SBS 탄현제작센터가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음. 고양시에서 서부권은 특별한 문화적 특징이 없는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부권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분포 자원 간의 연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덕양구 남부의 특성

-덕양구 남부는 역사문화자원에서 유·무형 문화재가 가장 풍부한 것으로 나타남. 전통문화 보존 전수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예술문화자원에서 공연예술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남. 시각예술자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문학예술자원에서는 문학 행사가 덕양구 남부에서 주로 열리고 있

있음. 생활문화자원에서는 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지역기반 문화시설의 경우 청소년 문화시설이 주로 덕양구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양시 남부가 가진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할 방안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하며, 도서관 접근성이 낮는데 작은도서관의 수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문화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덕양구 북부의 특성

- 덕양구 북부는 역사문화자원에서 유·무형 문화재가 가장 풍부하며 박물관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서오릉과 서삼릉이 모두 북부에 위치하고 있음. 예술문화자원에서 덕양구 북부는 공연예술시설이 부족하고, 시각예술자원은 풍부한 편으로 조사됨. 문학예술자원에서는 문학관 2개소가 모두 덕양구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고, 반면에 서점이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영상문화자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생활문화자원에서는 도서관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작은도서관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 문화시설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고양시 북부는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보존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청소년 공간으로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5. 결론 및 제언

□ 결론

○ 시설이 아닌 공간의 성장 필요

- 고양시의 문화정책은 인구 100만이 넘어가면서 대규모의 문화기반시설 조성 과 국제적 지역문화축제의 활성화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그러나 이제는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문화공간의 질적 성장 및 복합화가 필

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전반적으로 문화자원이 일산 동구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공간의 성장과 복합화를 통해 지역적 균형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임.

○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모색

-고양시는 덕양구를 중심으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풍부한 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역사문화자원을 대한 태도는 문화유산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유도하며 점차 개방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 한편 고양시는 역사문화자원을 관리할 박물관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지금도 고양시 지역에서 수집한 유물은 발굴한 단체가 수집해가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출토된 유물이 고양시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새로운 콘텐츠: 영상예술자원

-영상예술자원은 민선5기 때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문화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영상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해 제작지원작을 선정하고, CJ문화콘텐츠단지처럼 방송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신한류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방송영상밸리를 추진하여 방송영상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강화시키며, 영상예술자원을 통해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고양시의 브랜드 상품을 육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고양시에 위치한 방송사 2곳의 이전 논의는 방송영상밸리를 추진하는 고양시에게 있어 방송사를 유치할 수 있는 고양시만의 이점에 대해서 고민해야할 필요성을 던지고 있음.

○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작은도서관

-고양시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도서관 시설 확충과 통합프로그램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와 함께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대표하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 작은도서관은 덕양구 북부 위주로 증가되었고, 공립보다는 사립의 형태로 증가함.

그로인해 고양시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됨. 작은도서관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도서관을 조성하여 공공도서관의 분관기능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중심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만들어짐. 그러나 열악한 운영인력은 부실운영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실제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 중 상당수가 지나치게 작은 규모여서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순환주기에 따른 시사점

-문화순환주기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창작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발굴이 중요하며, 생산/보급에서는 예술인의 창작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양아트페어와 같이 문화예술의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또한 영상방송산업의 육성을 통해 문화예술을 매체로 전달해야 함. 전시/발표/전송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나아가 육성된 영상방송산업을 관련 축제로 기획할 필요가 있음. 소비/참여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문화공간이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성장이 필요하며, 방송시설과 문화시설, 상업복합시설 등 시설 간 연계 및 공간의 복합화를 통해 문화향유의 활성화가 필요함.

□ 정책 제언

○ 역사문화자원 보존, 관리, 홍보, 활용 강조

-고양시에서도 서울시의 '미래유산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양시의 문화자원을 보존, 관리, 홍보, 활용하는 방안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 고양시의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고양학 연구 활성화 되어야 함.

○ 고양시 예술인 실태조사의 정례화

-문화자원의 중요한 구성요인 중 하나인 예술가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

음. 고양시 예술인에 대한 조사를 정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예술인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고양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음.

○ 고양시와 방송영상산업의 연계 방안 모색

-일산 동구 지역에 영상문화자원 풍부한 것으로 나타남. 방송영상산업과 일산 동구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고양시에 소재한 영화제작 관련 사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콘텐츠를 개발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방송영상산업 특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음.

○ 도서관 공간의 복합화 등 문화공간 확대 필요

-고양시에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이러한 도서관 공간을 활용하여 복합과 기능다양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부족한 시설을 증설하기 보다는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생활밀착형 문화 공간으로 성장하여 시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야 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절 연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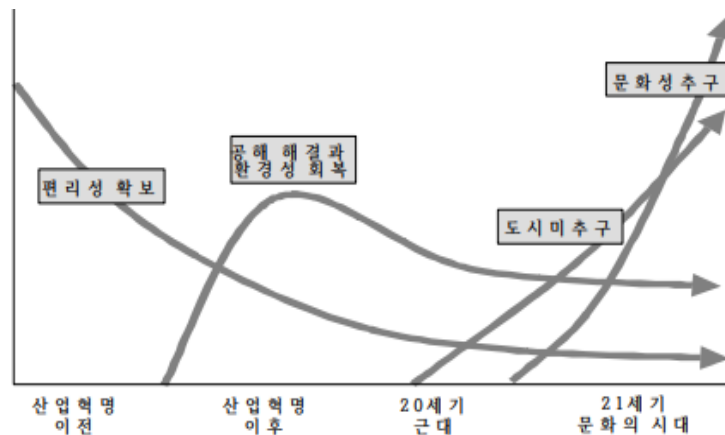
1. 연구 배경

1) 도시환경에서의 문화의 중요성 증가

세계는 지금 문화로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낡은 폐시설이나 버려진 유휴 공간을 문화시설로 변형하여 지역의 활력을 찾고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창출하고 있는 사례들이 세계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역시 이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화란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구조를 의미하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점차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 발전에 따른 도시환경의 요구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편리성 → 환경성 → 심미성 → 문화성의 순으로 변화된다. 즉, 도시의 경제성과 효율성은 기본으로 그에 더하여 여유로움, 안락함, 즐거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의 조성과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순환 및 도시의 정체성 회복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3).

[그림 1-1] 도시환경욕구



출처 : 전영욱, “도시 어메니티의 개선과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3, p.8.

2) 우리나라 지역발전 계획 및 실행에서의 문화적 관점 강조

과거의 문화정책은 소외되거나 위기에 처한 공동체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역할이 한정되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인류의 권리이자 지역 및 국가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 들어서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침체된 도시 구역을 문화의 생성과 사회적 가치 순환을 매개하는 중요 구역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

국내에서도 지역의 성장과 발전방식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은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 행사 등을 건립 및 마련하는 ‘문화(예술)를 위한 환경’의 관점에서 문화환경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 생활공간/양식의 환경을 문화화하는 ‘문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정책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문화영향평가’제도와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사업에 문화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3) 고양시 문화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적 인식 제고의 필요

지역의 문화 관련 조례재정 수는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문화와 관련한 적극적 실천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고양시의 문화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유사 타 도시와 비교하여 미흡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조례는 문화자원과 문화도시 및 공간조성에 대한 조례보다도 문화 관련 시설 및 기관 설립과 관련한 것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¹⁾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2017년 9월 발표하였고, 2017년에 68개, 2018년에는 전국 99개의 지역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재환, 2019: 748; 이영아, 2019: 193).

[표 1-1] 문화관련 주요 법률 및 지방 조례 비교

구분	관련 조례			문화관련 법률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시설 및 기관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지방문화원진흥법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문화진흥법
	-	-	고양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	용인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문화 지원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지역문화진흥법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	-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수원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문화상 조례	-	-
문화 도시 및 공간 조성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	-	지역문화진흥법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일 2019.4.15.

고양시가 지속적인 문화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더욱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설 조성 및 조직 설치 위주의 정책보다는 앞서 언급한 ‘문화적 환경조성’ 위주의 정책으로의 관점 확대가 필요하다.

즉, 생활문화와 지역의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하며, 문화다양성 관련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예술인 복지법과 관련한 조례 및 정책마련도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추진될 고양시의 미래 문화정책이 시설 건립 등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의 공간과 시민의 생활양식을 문화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의 문화정책을 점검하고 문화자원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의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1) 고양시 문화정책 및 문화자원 현황 분석

고양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고양시의 문화정책과 문화자원을 파악한 기초연구가 없었다. 또한 문화자원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문화자원 조사틀을 검토하여 고양시의 문화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양시의 문화자원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고양시 문화자원 특성 분석

고양시의 문화자원 현황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고양시 내 지역구분은 일산 서부권, 일산 동부권, 덕양 남부권, 덕양 북부권의 4개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다. ‘2030년 고양 도시기본계획 보고서(고양시, 2016)’에 따르면, 고양시의 생활권은 2개 대생활권(일산, 덕양)과 4개 중생활권(일산서부, 일산동부, 덕양남부, 덕양북부)으로 구분한다. 이는 과거의 생활권 설정 방식에서처럼 시민들의 활동과 무관하게 초등학교, 공원 등 시설의 이용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정 및 편익시설의 적정배

치와 도시기능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 생활의 불편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유도를 고려하여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생활권 설정을 중심으로 고양시의 문화자원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고양시 문화정책 발전방안 제안

고양시의 문화정책, 문화자원 현황을 분석하여 고양시의 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방향이 고양시의 지역성장과 지속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연계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림 1-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절차	주요내용	연구방법
1. 문헌조사와 선행연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적, 필요성 기술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자료 검토 • 선행연구 검토
2. 고양시 문화자원 환경분석 3. 고양시 문화자원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문화정책과 고양시 문화정책 비교 분석 • 고양시 시기별 문화정책 분석 • 고양시 문화자원 관련 조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선행연구 분석 • 현황자료 분석 • 현장방문 • 전문가 자문
4. 고양시 문화자원 특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원 선행 조사들 검토 • 고양시 문화자원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
5. 결론 및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문화정책 발전방향 제안 • 연구의 결론 및 의의, 한계점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

1. 문헌조사와 관련 선행연구 검토

문화자원 분포와 문화자원 특성분석과 관련한 국내 보고서와 학술논문, 문화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하여 고양시 문화환경 조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고양시의 문화정책과 문화자원 현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2. 고양시 문화자원 환경분석

고양시 시정 백서, 종합추진 계획, 신문기사, 관련 학술논문 등을 검토하여 정부의 문화정책과 고양시의 문화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고양시의 시기별 문화정책을 파악한다. 문화자원과 관련된 조례를 검토하고 지역문화실태조사를 통해 고양시의 문화환경을 분석한다.

3. 고양시 문화자원 현황분석

문화자원 선형 조사들을 검토하여 고양시의 문화자원 조사들을 도출하고, 도출한 문화자원 조사들을 토대로 현황자료 분석과 전문가 자문 및 현장방문을 통해 고양시의 문화자원 현황을 조사한다.

4. 고양시 문화자원 지역별 특성분석

앞서 실시한 문헌연구, 현황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집된 문화자원 분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고양시 문화자원의 지역별 특성을 도출하고, 고양시의 문화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제 2 장 고양시 문화환경

제1절 중앙정부와 고양시의 문화정책

제2절 고양시 지역 문화환경

제절 중앙정부와 고양시의 문화정책

문화정책(cultural policy)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유네스코(UNESCO, 1969: 10)는 문화정책을 “한 사회에서 어떤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사용이며 작위 또는 부작위(action or lack of action)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정홍익(1992)은 “문학과 예술을 포함하여 국민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행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임학순(1996)은 문화정책을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부문에 개입하려는 일련의 행위 및 상호작용”라고 정의하였다. 루이스(Louis, 2017)는 “예술, 인류, 유산에 대한 정부의 활동의 총체”를 문화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종합하자면 문화정책이란, 문학, 예술, 문화전통, 인류, 유산과 연관된 활동들의 넓은 범위를 포함하며,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문화정책은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바뀌어왔다(김정수, 2017: 401-402).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고양시의 문화정책을 비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행정부와 기초자치단체장의 교체시기별로 문화정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1998)는 전체 국가 예산 중 문화예산의 비중이 1%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삶의 질을 세계화하기 위해 정책들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문화발전을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보고 문화 창달을 통해서 질적으로 풍요로운 신한국을 건설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1993년에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신설되었다. 또한 이전에 추진하던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을 수정하여 1993년에 문화창달 5개년계획(1993-1997)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을 통해 민족정기 확립,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복지, 문화창조력 제고와 문화환경개선, 문화산업 개발과 기업문화 활성화 지원, 한겨레 문화 조성과 우리 문화의 세계화 등에 정책을 펼쳤다(오양열, 1995: 66-67). 문화산업분야가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문화정책의 범위는 체육문화, 청소년문화, 관광문화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세계화를 내세우면서 세계화 시대에 맞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이 문화 복지 정책 중 하나로 ‘문화의 집’이 설립되었다. 이는 전문 예술인보다 일반인 위주로 정책 추진방향을 바꾸고 문화 취약계층까지 함께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배관표 외, 2013: 143-156; 진혜영·고재욱, 2016: 104).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1998~2003)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문화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문화정책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다(배관표 외, 2013: 156-157). 기존의 문화체육부를 1998년에 문화관광부로 개편하였고, ‘국민의 정부 새문화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문화시설기반 확충 및 운영 개선,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기반 조성, 창조적 예술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문화 복지의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문화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전망하고 영상산업, 애니메이션 등을 적극 진흥하기도 하였다(정철현, 2006: 10-11). 또한 문화가 중심가치가 되는 지식정보화사회를 추구하고, 문화민주주의를 통해 성숙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정체성과 보편성의 조화로 열린 문화를 구현하고자 했다. 동시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남북 문화교류의 햇볕정책도 이 시기에 시행되었다(진혜영·고재욱, 2016: 104). 김대중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하에서 문화정책을 펼쳤고, 2000년도에 문화예산 점유율 1.02%를 달성하여 문화예산의 확충을 이끌었다.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2003~2008)는 분배적 통치철학을 토대로 문화정책의 기조도 수직보다 수평적 문화, 권위주의의 타파 등을 표방했다. 이것은 소외계층, 시민단체,

여성문제, 청소년교육문제 등을 아우르는 다원적인 문화정책으로 나타났다. 문화소외계층에게 직접 찾아가는 정책을 펼쳤으며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박광무, 2009: 184; 배관표 외, 2013: 157). 문화가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보고, 문화적 창의성을 사회 전반에 활력을 주는 근원이라고 보았다. 2004년에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비전’을 발표하며 문화정책에서 문화의 개념을 확대시켰다(원향미, 2014: 183). ‘창의한국’은 문화정책의 비전이었으며,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시민,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목표로 세웠다(이병량·황설화, 2012: 262). 또한 2006년에 ‘문화현장’을 공포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 지향성은 문화의 창의성이나 다원성 등 문화의 본원적 가치를 강조하였고 임기 후반에는 문화의 산업적 가치에 주목했다(진혜영·고재욱, 2016: 104-105).

이명박 정부(MB정부, 2008~2013)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고 문화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문화산업, 문화향유기회의 확대, 실용적 역할분담, 녹색성장, 콘텐츠 수출 등을 제시했다(원도연, 2014: 228). ‘선진화’,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는 원칙과 효율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과 접근방법의 발굴로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했다(진혜영·고재욱, 2016: 105). 그리고 소외계층과 문화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도 중요시했다(박광무, 2009: 184).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향유권의 확대와 콘텐츠산업의 육성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또한 경제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문화예산을 1%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제위기로 문화소비가 위축될 것에 대비하여 문화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목표를 세웠다. 한편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오던 문화예술의 지원방식인 ‘팔길이 원칙’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사라졌다(김평수, 2013: 19). 이밖에 정치적으로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성향을 분명히 드러냈고, 산하기관에 우과인사를 등용하기 위한 명분으로 문화 분야에서 이념을 이용했다(김평수, 2013: 21; 원도연, 2014: 221; 진혜영·고재욱, 2016: 105).

박근혜 정부(2013~2017)는 문화정책의 비전으로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삶’을 표방했다. 문화융성이란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

의 기본원리로 작동하여 국가발전의 토대를 이루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¹⁾을 의미한다. ‘문화가 있는 삶’이란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의미한다(진혜영·고재욱, 2016: 106). 비전 안에는 5가지 키워드인 문화, 행복, 경제, 통합, 국격이 있고,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 문화국가 만들기 등을 정책기조로 언급했다(원도연, 2014: 239).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문화재정 2%달성, 문화기본법 제정, 소통과 신뢰의 문화행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문화융성 관련 법안인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년 정기국회를 통과했고 예술인복지법도 개정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존재한다(이원재, 2013; 원향미, 2014).

문재인 정부(2017~)는 문화정책의 비전으로 ‘사람이 있는 문화’를 제시하였다. ‘사람이 있는 문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현됨을 전제한다. 문화비전 기초에서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하여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3대 방향으로 정하였다. 자율성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이다. 국가는 ① 개인의 문화 권리를 확대하고, ②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③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핵심의제로 한다. 다양성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존하고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가치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④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확산하고, ⑤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며, ⑥ 지역 문화분권을 실현한다. 창의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원천 가치이다. 국가는 ⑦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⑧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을 확대하며, ⑨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추구해야 한다.²⁾

1) 문화융성위원회 홈페이지(http://18pccce.pa.go.kr/01_info/01_why.html) 접속일 2019.4.15.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832>) 접속일 2019.4.15.

[표 2-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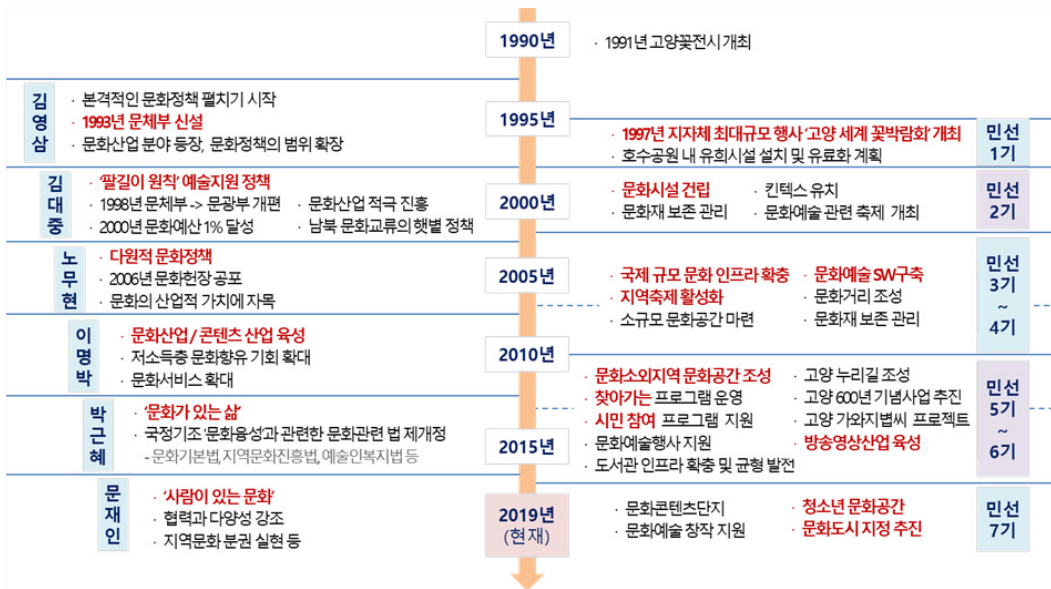
구분	특징
김영삼 정부 (1993~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발전을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보고 본격적인 문화정책 펼침 - 1993년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신설됨 - 1993년 문화창달 5개년계획(1993-1997)을 수립 - 문화산업분야가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문화정책의 범위가 체육문화, 청소년문화, 관광문화 분야까지 확대됨 - 세계화 시대에 맞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의 개념을 구체화함
김대중 정부 (1998~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 길이 원칙이라는 예술지원정책 기초를 밝힘 - 문화정책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정책 펼침 - 1998년 기존의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개편 - ‘국민의 정부 새문화정책’을 발표 -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전망하고 적극 진흥함 - 문화민주주의를 통해 성숙한 민족공동체를 형성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남북 문화교류의 햇볕정책 - 2000년 문화예산 1% 달성
노무현 정부 (2003~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책의 기초: 수평적 문화, 권위주의의 타파 등 - 소외계층, 시민단체, 여성문제, 청소년교육문제 등을 아우르는 다원적인 문화정책 펼침 - 문화를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봄 - 2004년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비전’을 발표 - 2006년에 ‘문화한장’을 공포 - 문화의 산업적 가치에 주목함
이명박 정부 (2008~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책의 추진방향: 선택과 집중, 문화산업, 문화향유기회의 확대, 실용적 역할분담, 녹색성장, 콘텐츠 수출 등 -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향유권의 확대 - 경제위기로 문화소비가 위축될 것에 대비하여 문화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목표를 세움 - 콘텐츠산업의 육성
박근혜 정부 (2013~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책의 비전: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삶’ - 5가지 키워드: 문화, 행복, 경제, 통합, 국격 - 정책기조: 문화로 국민행복 바꾸기,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 문화국가 만들기 등 - 실현 방안으로 문화재정 2%달성, 문화기본법 제정, 소통과 신뢰의 문화행정 제시함 - 문화융성 관련 법안인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예술인복지법 개정
문재인 정부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책의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3대 가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 자율성: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 - 다양성: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존하고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가치 - 창의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원천 가치

자료: 김평수, 2013; 박광무, 2009; 배관표·이민아, 2013; 오양열, 1995; 이병량·황철하, 2012; 이원재, 2013; 원항미, 2004; 원도연, 2014; 정철현, 2006; 진혜영·고재욱, 2016.

2. 고양시의 문화정책

고양시의 문화정책은 고양군이 시로 승격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양시 문화정책의 변천에 있어 시작단계에서는 신도시개발과 함께 문화시설 건립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점차 문화공간 조성 및 콘텐츠 개발 및 육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민선 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1] 중앙정부와 고양시의 문화정책 시간별 비교



민선 1기인 신동영 전 시장(1995~1998, 1998~1999)은 '신바람 나는 고양'을 시정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1991년 고양 꽃전시가 최초로 개최되었는데, 그것을 발전시켜 1997년 5월 지방자치단체규모로는 최초로 세계규모의 행사인 고양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였다.³⁾ 1998년에는 고양시연극협회가 설립되었고, 고양시연극협회는 신동영 전 시장과 함께 연극의 부흥을 위해 연극 사업을 추진하였다.⁴⁾ 한편 호수공원의 효율적이고 체

3) "고양시 15년사", 고양신문(2004.06.01.), <http://www.mygo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1>. 접속일 2019.4.16.

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산신도시 호수공원 내 유희시설 설치 및 유료화 계획이 세워졌으나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발로 철회되었다.⁵⁾ 1999년에는 수도권 종합전시장이 고양시에 유치되었다⁶⁾.

[표 2-2] 민선 1기 문화정책

구분	특징
신동영 전 시장 (1995~1998, 1998~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5월 지방자치단체규모로는 최초로 세계규모의 행사인 고양세계꽃박람회를 개최 • 1998년 고양시연극협회가 설립 • 일산신도시 호수공원 내 유희시설 설치 및 유료화 계획 → 시민들의 반발로 철회 • 1999년 수도권 종합전시장 유치

자료: “고양시 15년사”, 고양신문(2004.06.01.); “참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항상 무대 언저리에”, 한겨레(2012.02.28.)

민선 2기인 황교선 전 시장(1999~2002)은 ‘새 천년을 선도하는 희망찬 새 고양’을 시정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경영행정의 실현, 대민봉사의 혁신, 주민복지의 증진, 환경도시의 건설, 문화관광의 진흥을 시정 방침으로 내세웠다. 이 시기에는 화정 종합문화타운이 건립되어 역사박물관, 고양문화원,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유적보관 및 연구실, 야외전시장, 야외민속공연장, 휴식공간이 조성되었다. 또한 화정도서관, 백석도서관, 마두(정발산)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립도서관을 확충하였다. 호수공원 내 고양꽃전시관 옆에 전시코너, 영상관, 회의실, 기념품점 등으로 구성된 관광종합홍보관을 건립하였다. 한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북한산성 보수공사와 향토유적 은지 보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고양예총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민의 날 기념 문화예술축제(2002.10.05.~10.06.), 덕양 문화예술축제(2002.09.13.~09.14.), 통일로 문화예술축제(2002.10.12.~10.13.) 등 여러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였다(고양시, 2003).

4) “참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항상 무대 언저리에”, 한겨레(2012.02.28.), <http://www.hani.co.kr/arti/PRINT/521137.html>. 접속일 2019.4.16.

5) “신동영 고양시장 호수공원 유료화 철회 안 해”, 중앙일보(1997.09.03.), <https://news.joins.com/article/3512130>. 접속일 2019.4.16.

6) “COEX의 8배 규모 수도권 종합전시장 일산에 건설”, 한국경제(1999.04.28.),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1999042802891>. 접속일 2019.4.16.

[표 2-3] 민선 2기 문화정책

구분	특징
황교선 전 시장 (1999~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정 종합문화타운 건립 • 화정도서관, 백석도서관, 마두(정발산)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립도서관확충 • 호수공원 내 고양꽃전시관 옆 관광종합홍보관 건립 • 북한산성 보수공사와 향토유적 은지 보호 사업 추진 • 고양예총 보조금 지원, 문화예술축제 개최

자료: 고양시, 『2001~2002 시정백서』, 2003.

민선 3기인 강현석 전 시장(2002~2006)은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고양’을 시정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열린 서비스행정 구현, 첨단도시 기반 구축, 균형된 복지 실현, 문화예술관광 진흥,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시정 방침으로 내세웠다. 문화예술관광 진흥은 많은 문화, 예술인을 활용하여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통문화예술을 관광 자원화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문화행사와 현대 문화예술과 전시를 배치하여 고양행주문화제를 개최하였다. 2005년 영상미디어도시를 위해 고양국제어린이 영화제를 개최하여 30여 개국의 100편이 넘는 영화가 상영되었다. 국제규모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를 개관하였다. 또한 독서 인구의 확대를 위해 행신·화정·주엽 어린이도서관, 정발산·대화·한피도서관 등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3년에 문화사랑방, 정보자료실, 동아리방, 문화체험실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복합 문화공간인 탄현문화의집을 추진하였으며, 화정동 야외공연장, 전통문화 상설공연장, 생태학습장, 전용공연장, 과학체험, 영어체험마을 등 어린이전용 문화시설을 추진하였다. 한편 경기관광종합홍보관 운영,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노래하는 분수대 운영 등 관광자원의 관리와 홍보를 강조하였다.

나아가 2003년에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된 고양시립예술단을 창단하였고, 공모를 통해 1년 단위의 민간교향악단과 계약하여 고양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폭적 참여와 지원을 위해 고양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한편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해 고양시 역사·문화를 기록한 고양시사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6개월에 걸쳐 편찬되었다(고양시, 2006).

[표 2-4] 민선 3기 문화정책

구분	특징
강현석 전 시장 (2002~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축제활성화(고양행주문화제, 고양국제어린이 영화제) • 국제규모의 문화 인프라 확충(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도서관 시설 확충, 탄현문화의집, 화정동 야외공연장, 전통문화 상설공연장, 고양어린이나라 건립추진) •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고양시립예술단, 교향악단 이웃소식, 고양문화재단 건립 •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경기관광종합홍보관 운영, 고양시 문화의거리 조성, 노래하는 분수대 운영) • 문화재 보존 관리(고양시사 편찬)

자료: 고양시. 『민선3기 고양시 시정백서』, 2006.

민선 4기는 강현석 전 시장(2006~2010)이 연임하였다. 시정 슬로건은 ‘꿈이 있는 고양, 꿈을 이루는 고양’이었고, 시정방침은 쾌적한 환경도시,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 내일을 준비하는 교육·복지도시,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도시로 세웠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란 한 차원 높은 도시 품격에 걸 맞는 기초질서 확립, 고질적인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벗가게 정착,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명품거리 조성, 도시경관계획 수립 운영과 함께 국제수준의 아람누리과 어울림누리 등 고품격 문화시설 운영, 고양 국제꽃박람회 개최, 향토예술축제인 행주문화제, 호수예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축제와 국제 문화예술 교류를 의미한다.

2006년 고양시는 세계적인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지에서 가정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10대 도시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을 통한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불법노점이 거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노점을 합법화 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였다. 또한 국제수준의 문화·예술도시를 기획하며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를 개관하였고, 고양 국제꽃박람회와 고양행주문화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양호수예술축제나 고양야외조각축제가 개최되었다. 민선4기에도 문화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2008년 고양문화의집이 개관하였고 문화원사 건립을 추진하였다. 또한 고양시립예술단과 교향악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노래하는 분수대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었고, 행주산성, 밤가시초가, 서오릉, 서삼릉, 호수공원 내 문화관광해설사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고양시, 2010).

[표 2-5] 민선 4기 문화정책

구분	특징
강현석 전 시장 (2006~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을 통한 특화거리(불법노점의 합법화 → 길벗가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 국제수준의 문화예술도시 기획(고양어울림누리, 아람누리 개관, 고양 국제꽃박람회, 고양행주문화제) • 지역축제의 활성화(고양호수예술축제, 고양아외조각축제) •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고양문화의집 개관, 문화원사 건립 추진) • 고양시립예술단과 교향악단 운영 지원, 고양문화재단 • 관광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홍보(노래하는 분수대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자료: 고양시, 『민선4기 고양시 시정백서』, 2010.

민선 5기(2010~2014)인 최성 전 시장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을 시정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민우선의 자치도시, 따뜻한 복지·교육도시, 창조적 문화·예술 도시, 친환경 초록평화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를 시정방침으로 내세웠다. 이 시기에는 공공도서관 확충을 통한 전국 최고의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14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었는데 덕양구 5개소, 일산 동구 5개소, 일산 서구 5개소로 지역별 균형 있는 공공도서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공평한 정보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문화소외지역에는 정보와 소통의 공간인 공립 작은도서관 14개소를 조성하였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도서관을 조성하여 공공도서관의 분관기능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중심 공간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해 택배 도서대출 및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기관·병원·군부대·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지원, 작은도서관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등 시민의 곁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이동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독서 정보 소외지역을 순회하고 독서문화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편 도시대여, 영화상영, 각종 독서체험행사 등 시민참여 축제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고양600년 기념사업의 추진을 위해 고양600년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고양의 정신적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관 주도가 아닌 시민이 만들어가는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고양600년 특별 기념주간(04.25~05.12)을 운영하고 역사복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양600년 기념전시관을 운영하였다. 한반도 최초의 재배법씨인 고양 가와지법씨를 대상으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행주문화제, 고양호수예술축제, 고양600년 시민퍼레이드 등 시민참여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고양600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 및 지원하였다. 또한 시립합창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비롯해서 고양600년 기념 대규모 행사와 연계하여 고양시 전역에서 야외 무료음악회를 추진하였고, 게릴라 문화콘서트, 문화 소외지역의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확대하여 시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신한류예술단 운영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자연·역사·문화를 품은 고양누리길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영상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한 제작지원작 선정, 방송 영상 콘텐츠 활용을 통한 신한류 관광도시 조성, 방송영상 도시 브랜드 강화 등 신한류 영상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고양스마트 영화제를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영상축제를 운영하였다. 차세대음향지원센터, 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 스마트뷰티센터 유치를 통한 고양시 R&D 단지 토대 마련/ 경기도 G창업센터, 고양사회적기업센터를 통한 청년 창업,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폐정수장을 활용한 동양 최대의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조성/ 디지털방송제작센터, EBS방송국 등 방송영상제작환경 유치/ 경기영상펀드 운영을 통한 관내 영상기업의 제작기회 확대를 통해 인프라 유치 및 지원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K-POP전용 공연장을 유치하였고,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고양시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 고양시 브랜드 상품 육성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고양시의 우수 관광자원과 대표축제를 연계하여 팸투어를 추진하였다(고양시, 2014).

[표 2-6] 민선 5기 문화정책

구분	특징
최성 전 시장 (2010~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인프라 구축, 문화소외지역에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이동도서관 운영 활성화, 시민참여 축제형 프로그램 지원 • 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고양가와지별씨를 통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콘텐츠 활용 • 고양국제꽃박람회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민참여 문화프로그램 확대 • 신한류 예술단 운영 • 고양누리길 조성 • 방송영상산업 육성, K-POP 전용공연장 유치 • 고양 브랜드 육성 • 고양시 우수 관광지, 대표 축제 연계 홍보를 위한 팸투어 추진

자료: 고양시, 『민선5기 고양시 시정백서』, 2014.

민선 6기는 최성 전 시장(2014~2018)이 연임하였다. 시정 슬로건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그대로 유지하였고, 시정 방침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인권존중의 평화통일특별시가 추가되었다. 창조적 문화·예술도시는 시민이 만드는 고양양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국제 신한류 문화예술과 체육발전으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시기에는 글로벌 화훼 무역박람회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사계절 꽃문화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꽃 축제 개최를 통해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사계절 꽃 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민선5기에 이어서 가와지별씨를 통해 역사성 확대, 홍보와 마케팅, 박물관 활성화 등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또한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아쿠아스튜디오의 활성화, 방송·영상 분야의 실무형 인재 발굴 및 양성, 콘텐츠 기업 지원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DMZ국제다큐영화제 조직위 사무국을 고양시에 유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미디어 활용과 창작을 통한 시민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 고양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였다. 또한 경기 북부 내 주요 한류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고 방송영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고양신한류홍보관을 운영하였다. 고양스마트영화제도 개최되었다. 또한 고양 방송영상밸리,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 한류월드 테마파크 등을 추진하였다. 민선6기에도 신한류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자연·역사·문화를 품은 고양누리길 14개 코스를 조성하고, 도심 속 생태공원인 호수공원을 친환경 생태공원화, 가와지범씨 체험 재배지 등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시민친화공간으로 조성하였다.

2011년 6월 이후 시립도서관 5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10개소가 확충되었고, 전국 최초 찾아가는 교육·문화체험 도서관을 비롯하여 특성화 도서관 운영 및 브랜딩을 추진하였다. 또한 고양형 시민참여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였다. 관내의 33개 도서관에 도서관리스시스템을 통합, 스마트도서관 개관 등을 통해 스마트한 지식정보 제공 통합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또한 책누리 서비스 시행, 생활밀착형 도서관 확대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한편 아마추어, 예술인 등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자 하였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야외 공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고양형 시민참여 축제를 추진하였다. 시민체감형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고양어린이박물관 개관, 고양일산역전시관 및 희망장난감도서관, 고양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등을 운영하였다(고양시, 2018a).

[표 2-7] 민선 6기 문화정책

구분	특징
최성 전 시장 (2014~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사계절 꽃문화 관광벨트 구축 • 가와지범씨 5000프로젝트 추진 •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고양신한류홍보관, 고양스마트영화제 개최, 고양 방송영상밸리 조성 추진,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 한류월드 테마파크 추진 • 고양누리길 14개 코스 조성, 호수공원 업그레이드 • 도서관 인프라 구축 및 균형 발전, 고양형 시민참여 도서관 운영 활성화, 통합서비스 확대, 생활밀착형 도서관 확대 운영 • 유럽형 거리공연 문화정책,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확대, 고양형 시민참여 축제 추진 • 600년 문화도시 고양 역사성 계승 • 시민체감형 문화 인프라 확충

자료: 고양시, 「민선6기 고양시 시정백서」, 2018a.

민선 7기인 이재준 시장(2018~)은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을 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미래를 꿈꾸는 평화경제특별시,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중심도시, 풍요로운 삶의 시민행복도시, 조화와 균형의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시정 방침으로 세웠다. 풍요로운 삶의 시민행복도시 안에 성장하는 교육도시, 다채로운 문화도시, 나누고 누리는 복지도시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고양시는 다채로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1인당 도서관구입비를 확대하여 독서인구의 확대와 책읽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시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예술공연, 고양문화재단·시립예술단·고양문화원·고양예총 등과의 협업을 통해 균형 잡힌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예술인·마을활동가 및 공동체의 창작활동을 위해 문화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고양시 교향악단과 고양시립예술단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고, 고양 행주문화제와 고양호수예술축제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편 K-POOP공연장과 한류쇼핑센터, 디지털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 CJ 문화콘텐츠단지 조성 및 대중문화누림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해 문화공간을 조성해주고, 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창작활동을 지원해주고, 시민예술아카데미 구축으로 다양한 예술콘텐츠를 보급한다. 또한 고양아트마켓 개최 등 시민 친화적인 미술플랫폼을 구축하며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양시, 201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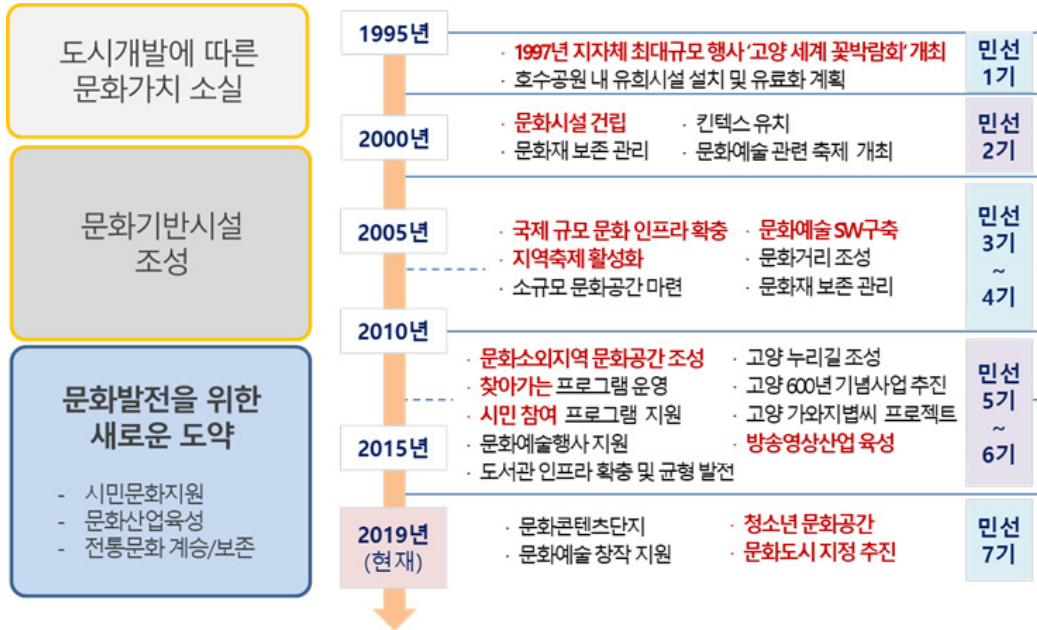
[표 2-8] 민선 7기 문화정책

구분	특징
이재준 시장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인프라 확충 • 시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사업 추진 • 고양시교향악단과 고양시립예술단 지속 운영 • 고양행주문화제와 고양호수예술축제도 지속 개최 • CJ문화콘텐츠단지 조성 및 대중문화누림터 조성 계획 •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 예술인들 창작활동 지원 • 시민예술아카데미 구축으로 다양한 예술 콘텐츠 보급 • 시민친화적 미술플랫폼 구축 • 문화도시 지정 추진 계획

자료: 고양시,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공약사업)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추진 계획(요약)』, 2018b.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고양시 문화정책은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① ‘잊혀진 문화가치’의 시기 → ② ‘문화기반시설 조성’의 시기 → ③ ‘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나누고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2-2] 고양시 문화정책 시기별 특징



첫 번째는 민선 1기부터 2000년대 중반 까지 도시개발 집중으로 인하여 문화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부재하였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 개발로 인해 문화의 보존 및 관리에는 정책적으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여 고양시의 다양한 향토문화들이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재에는 고양시의 역사적, 전통적 문화들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실천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역사문화자원들이 지속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어 이에 대한 고양시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시기는 문화기반시설 조성의 시기이다. 9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도시개발로 고양시에는 가파른 인구상승률이 있었다. 이 때 도시에 필요한 많은 시설들이 건립되었으며, 문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양아람누리’와 같은 대규모의 문화기반시설 건

립이 추진되었다. 그 이후에도 문화거리 또는 소규모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조성하는 기반 마련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던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시기이다. 201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양시는 시설 건립보다는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새로운 문화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역사 및 전통문화자원의 가치를 회복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지원, 방송영상단지 및 CJ문화콘텐츠단지 조성, 스마트영화제 개최지원 등의 이에 해당한다.

고양시는 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한 만큼, 이 도약을 지속적으로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때에는 반드시 고양시가 보유한 문화적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보존, 관리, 연계, 지원, 활용할 것인가를 체계화 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제2절 고양시 지역 문화환경

1. 고양시의 문화 관련 조례 및 규칙 현황

고양시의 문화와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면 크게 전통문화 보존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문화 보존과 관련된 조례는 5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관련된 조례는 10개로 나타났다.

[표 2-9] 고양시 문화 관련 조례 및 규칙 현황

구분	조례규칙
전통문화 보존 (5)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문화예술 발전 (10)	‘고양시 문예회관 사용 조례’, ‘고양시 문예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자료: 국가정보법령센터(www.law.go.kr) 접속일 2019.4.16.

문화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생활문화와 지역의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하며, 문화다양성 관련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예술인 복지법과 관련한 조례와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지역문화실태조사로 본 고양시 문화실태

1)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역문화실태조사란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각 지역의 문화역량의 현황을 파악 및 진단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조사이다. 2000년대 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영, 혁신도시 건설과 지방이전 등 지역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법제화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문화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지역문화 현황 분석 및 환경진단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림 2-3] 지역문화실태조사(지역문화지표) 추진경과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1권) - 현황통계 분석』, 2019, p12.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을 시작으로 지역의 문화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를 진

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38개의 ‘지역 문화지표’를 도출하고 광역시를 제외한 15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시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문화지표 체계 도입 및 효과적 검증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측정범위가 모호하고 분석의 틀이 미흡하다는 시범연구로서의 한계 때문에 2013년 또 다시 지표체계 정립과 지수화 작업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의 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 38개에서 37개로 지표가 정립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전국 229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틀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표 틀이 정립되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 영역의 구분,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차원에서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4년에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를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37개의 지표에서 26개의 지표로 축소되었고, 전년도 상위권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범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표값을 정량화 및 객관화하였다.

이 지표들을 토대로 2015년에는 지역문화실태조사가 본격화되어 전국 229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이를 통해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지자체의 입력 및 관리기관의 조회가 편리해져서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2019년에는 2017년도의 데이터값을 수합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문화균형지수의 시범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를 진행하였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표검증 결과 최종적으로 28개의 지표(아래 표 참조)가 확정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전국 229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하여 문화지수를 도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개발된 지역문화지표와 실태조사를 통해 수합되는 데이터들은 공신력과 대외인지를 높이기 위해 문체부와 통계청 간 협의를 통해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되었으며, 공식명칭은 ‘지역문화현황통계’로 등록되었다. 2020년을 기준으로 3년 주기로 조사 실시될 예정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a).

[표 2-10]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자료출처
문화 정책	정책사업	1 중앙정부/광역 기획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수 (2017년 당해)*	지방자치단체
		2 전체 문화예술사업 중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 (2017년 당해)*	지방자치단체
	정책환경	3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개수 (2017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4 문화관련 조례 제정 건 수 (2017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	5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2017년 당해)	기준년도 예산계획서
		6 인구 1명당 문화관련 예산액(2017년 당해)	기준년도 예산계획서
		7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여부(2017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문화 자원	문화유산	8 문화유산 보존 관련 조례제정 여부(2017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9 전체 문화 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보존/관리 예산 비율(2017년 당해)*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	10 인구 천 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2017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11 인구 만 명 당 생활문화시설 수(2017년 현재)	문체부 자료,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지역문화진흥원
		12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바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비율(2017년 현재)	장애인인증개발원
		13 공연장 전시장-공공도서관 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비율 (2017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자원활용	14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2017년 당해)*	지방자치단체
		15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2017년 당해)	전국지역축제총괄표
		16 기초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2017년 당해)*	지방자치단체
	문화 활동	활동조직	17 지역문화예술법인, 단체 수(2017년 현재)
18 문화예술관련 사회적 기업 수(2017년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활동인력		19 인구 만 명 당 등록 예술인 수(2017년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 인력(2017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21 인구 만 명당 문화예술교육사 수(2017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22 문화관광해설사 수(2017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23 법정사서직원 확보율(2017년 당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문화 향유	지역주민	24	인구 만 명 당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 수(2017년 당해)*	지방자치단체
		25	‘문화가 있는 날’ 기초자치단체 기획사업 건 수 (2017년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외계층	26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및 카드 발급률(2017년 당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7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2017년 당해)*	지방자치단체
		28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2017년 당해)*	지방자치단체

(*표기가 되어있는 지표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문화 DB 입력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지표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1권) - 현황통계 분석』, 2019, p19.

2) ‘지역문화지표’로 본 고양시의 문화실태

(1) 자체 문화사업 추진 많은 편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 노력 기울여 문화사업 다양화 및 활성화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a)에 따르면,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없이 100%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 건 수(지표 2)를 조사한 결과, 고양시는 상위 10개 시·군·구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고양시는 2017년 기준으로 97건의 자체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에서는 5위이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1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1]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건수 순위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자체 문화사업 추진 건수(건)
1	충북 청주시	154
2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104
4	경남 진주시	95
5	경기 고양시, 전북 전주시	97
7	경기 수원시	84
8	경기 부천시	79
9	강원 강릉시	72
10	강원 동해시	70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1권) - 현황통계 분석』, 2019, p.31.

하지만, 고양시의 문화사업이 매년 유사한 내용과 행사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공모지원 사업에의 참여는 고양시의 문화정책의 방향성 위에서 추진되는 한 가지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국비 또는 도비 지원에 의존적인 문화정책 추진으로 실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지역문화진흥기금의 부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기금 조성을 권장 및 지원하고 있다. 이 기금의 설치 여부는 일반회계나 균특회계 예산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으로 부터 받은 기부금품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문화 및 예술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a).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a)에 따르면, 229개 지자체 중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곳은 48개(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관 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54.8%인 17개에서 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는 경기도 내에서 수원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도 그 기능과 성과가 아직은 미미한 상태이며, 규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지역이 기금설치 및 운영에 있어 시작 단계인 것으로 나타난다. 고양시 역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에서의 재정적 자율성 확보한다면 실질적인 문화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2] 경기도 내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기초자치단체

	기금 설치 기초자치단체명
경기도 (15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의정부시, 평택시, 광명시, 군포시, 화성시, 구리시, 포천시, 안성시, 하남시, 여주시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1권) - 현황통계 분석', 2019, p.41.

(3) 인구 수 대비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 부족으로, 문화공간 조성 및 확대 방안 필요

문화기반시설의 수는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문화향유 보장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a). 문화기반시설에는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보급, 전수시설이 포함되는데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a)에 따르면, 고양시는 2017년 기준으로 23개의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 시군 10위권에 포함되며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천 명당 시설 수를 살펴보았을 때 전국 평균 0.07개, 경기도 0.05개, 고양시는 0.02개 인 것으로 나타나, 인구 수 대비 시설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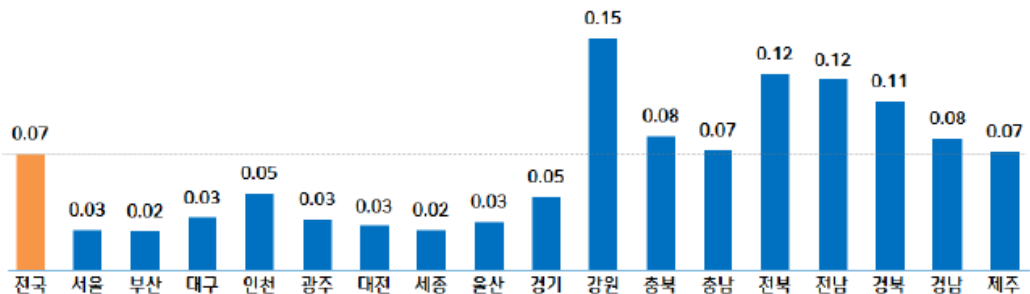
[표 2-13] 기초자치단체 문화기반시설 수 순위(상위 11개 시군구)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문화기반시설 수(개)
1	경기 수원시	30
2	경남 창원시	28
3	충북 청주시	27
4	경기 부천시, 경기 용인시	24
6	경기 고양시	23
7	경기 안산시	22
8	제주 제주시	20
9	경기 화성시, 제주 서귀포시	19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1권) - 현황통계 분석』, 2019, p.51.

[그림 2-4] 시도별 인구 천 명당 평균 문화기반시설 수 현황

(단위: 개)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1권) - 현황통계 분석』, 2019, p.52.

또한 고양시는 생활문화시설 현황과 관련하여 유사 인구 규모의 수원시가 1위인 반면, 상위 10위권 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수 대비 시설 현황은 더욱 부족한 것으로 산출되어, 전반적으로 고양시는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시설과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 증설 이외에도 대안적인 공간 마련을 위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4] 기초자치단체 생활문화시설 수 순위(상위 10개 시군구)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생활문화시설 수(개)
1	경기 수원시	147
2	경기 화성시	139
3	제주 제주시	130
4	광주 북구	128
6	경기 성남시	123
7	충북 청주시	115
8	경기 용인시	113
9	전북 전주시	111
10	광주 광산구	106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1권) - 현황통계 분석』, 2019, p.54.105

(4) 소결 :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고양시 종합지수는 중위권

2017년 기준으로 실시된 지역문화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a)에서 최종적으로 산출한 지역별 종합지수는 아래 표와 같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총 15개가 있으며 이 중 고양시는 중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시 중에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 창원시가 2,3위에 있는 반면, 고양시는 8위권에 머물고 있다. 고양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기금 설치 및 문화예산 확대, 국·도비 매칭사업 확대 실시, 문화 관련 조례 검토, 문화공간 확대를 통한 문화적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함을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15] 인구 50만 명 이상/미만 시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인구 50만 명 이상 시			인구 50만 명 미만 시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전북 전주시	2.9835	1	제주 서귀포시	0.6292
2	경기 수원시	1.5497	2	강원 춘천시	0.5784
3	경남 창원시	1.0824	3	강원 원주시	0.5298
4	충북 청주시	0.8133	4	전남 순천시	0.5086
5	경남 김해시	0.5970	5	경북 경주시	0.4976
6	경기 부천시	0.5960	6	전북 남원시	0.4968
7	충남 천안시	0.5904	7	경남 통영시	0.4325
8	경기 고양시	0.2760	8	경북 안동시	0.3375
9	경북 포항시	0.2581	9	경기 과천시	0.2990
10	경기 성남시	0.2235	10	경북 문경시	0.2632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2권) -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2019. p.24.

제 3 장

고양시 문화자원 현황 분석

제1절 문화자원 조사 틀

제2절 역사문화자원 분포 현황

제3절 예술문화자원 분포 현황

제4절 영상예술자원 분포 현황

제5절 생활문화자원 분포 현황

제절 문화자원 조사 틀

1. 문화자원 조사체계

우리나라에서의 문화통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는 1986년 처음으로 시작(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6)되었으며, 이는 유네스코의 권고서인 UNESCO, 1983)을 토대로 한 최초의 연구이다. 유네스코가 제안한 문화지표체계 유형을 중핵으로 엮으면서, 기존의 타 분야 지표개발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여 문화의 범주를 문화유산, 문학과 예술, 대중매체, 사회문화적 활동, 여가활동 등 5분야로 나누고 국제문화교류를 추가하여 총 6개 분야, 13개 관심영역을 포괄하는 350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이후 기존의 틀을 세분화하여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하고자 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1995)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문화유산, 문화예술(조형예술, 디자인,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대중매체, 사회문화활동, 여가활동, 국제문화교류 등 6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문화활동을 창작자/생산자, 창조물/생산물, 유통자, 유통물/행사, 수용자, 수용실태 등 6단계로 구분하였다.

2005년에는 선행지표를 검토하여 문화창작과 소비 및 참여의 영역까지 고려한 지표체계가 연구되었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은 이 연구를 통해 국제문화교류를 제외하고 문화유산, 문학, 조형예술, 공연예술, 대중문화, 문화공간, 여가활동, 문화재정 등 8개의 영역을 문화매체 지표로 설정하였고, 문화활동은 창작, 생산(보존), 매개(유통), 소비, 참여, 교육 등 6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2년, 2013년, 2015년도의 지표개발 연구 등이 이어져 온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문화통계 구축을 위한 지표틀을 체계화 하는 동안 1990년대 중후반에 서부터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1996년 서울연구원은 문화자원으로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활동, 전통문화자원, 문화행정 등 5개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장영희, 1996). 2002년에는 예술문화, 전통문화, 생활문화, 문화행정 등 4개의 영역을 설정하였고 시설, 공간, 활동을 포함시켰다(라도삼, 2002). 2007년에는 문화행정을 제외하고 역사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지역문화, 대중문화 등 5개의 영역을 설정하고 시설, 기반, 지역, 공간, 축제, 행사, 사람, 단체에 더하여 창작, 발표, 보전, 전수 활동까지 포함시켰다(라도삼,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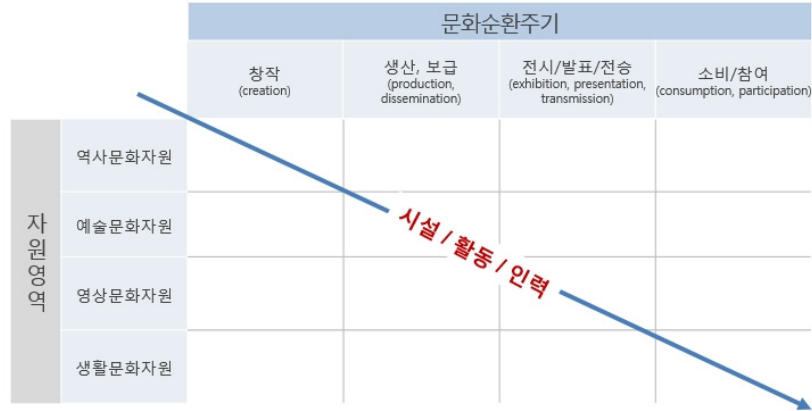
서울연구원은 2015년에 문화자원 지표를 다시 한 번 조사하였다(백선희·라도삼·이정현, 2015). 이때는 지역문화와 대중문화를 제외하고 역사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영상예술 등 4개의 영역을 설정하였고 유네스코(2009)의 문화순환주기(culture cycle)이론을 적용하여 창작(문화유산·인력), 생산/보급(문화산업), 전시/발표/전승(문화시설, 축제/페어, 전수시설)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문화순환주기란 문화를 일련의 과정의 산물로 보고 문화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창작, 생산, 보급, 전시/수용/전승, 소비/참여로 나타난다. 소비와 참여는 개인의 행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자원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백선희·라도삼·이정현, 2015: 7).

2. 고양시 문화자원의 조사 틀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까지 지표개발 및 지속적인 지표조사를 통해 지표체계를 구축해온 서울연구원의 문화자원 조사틀을 토대로 고양시의 문화자원 분포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화자원의 영역은 역사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영상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으로 구성되며, 문화순환주기는 소비/참여를 제외하고 창작, 생산/보급, 전시/발표/전승에 따라 문화자원의 시설, 활동, 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참여는 문화 참여(관람), 문화상품소비 등 개인의 행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자원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백선희·라도삼·이정현, 2015: 7-8). 다만 문화자원을 살펴볼 때 문화자원의 이용객 현황 정도로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 3-1] 문화자원의 조사 틀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백선희·라도삼·이정현, 2015)을 토대로 각 문화자원의 영역을 설명하고자 한다. 역사문화자원은 문화재와 그 외로 구분하였다. 문화재에는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명승, 등록문화재, 지방문화재, 민속문화재, 문화재 자료로 분류되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이 포함되었다. 그 외는 박물관과 전통문화보전 전수시설로 분류된다.

예술문화자원은 공연예술자원, 시각예술자원, 문학예술자원으로 구분하였다. 공연예술자원은 공연장이며, 고양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시설인 고양시 문예회관과 고양아람누리, 고양어림누리 3개소를 구분하여 종합예술시설로 살펴보았다. 시각예술자원은 미술관, 화랑, 갤러리, 경매소로 구분된다. 문학예술자원은 문학관, 문학 관련 행사, 출판사/인쇄소, 서점으로 구분된다. 영상문화자원은 영화예술자원과 방송예술자원으로 구분하였다. 영화예술자원 안에는 영화관과 영화제작 관련 업체로 분류되며, 방송예술자원 안에는 방송사와 방송 관련 업체로 분류된다. 생활문화자원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의집, 청소년문화시설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조사 지표를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주요 조사 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 출처	조사 내용
역사문화 자원	문화재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요무형문화 재, 무형문화재, 명승, 등록문화재, 지방문화 재, 민속문화재, 문화재 자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양시청>교육문화국>문화유산관 광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위치, 지정일
	그 외	박물관, 전통문화보전 전수시설	2018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네이 버 박물관, 국악원, 전수회관 검 색	위치, 설립연도, 운영주체, 유물 종류, 운영인력
예술문화 자원	종합예술시설	고양시 문예회관,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	시설 홈페이지, 2018전국문화기 반시설총람	위치, 개관일, 운영 주체, 직원 수, 공 연일수, 이용자 수, 규모
	공연예술	공연장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취 합 등록공연장 현황, 네이버 공 연장 검색	위치, 개관일, 운영 주체, 면적, 객석 수, 구동무대기계 기구 수
	시각예술	미술관, 화랑, 갤러리, 경매소	2018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김달 진미술연구소 전시공간 목록, 네 이버 미술관, 화랑, 갤러리, 경매 소 검색	위치, 운영주체, 개관일, 면적
	문학예술	문학관, 문학 관련 행사, 출판사/인쇄소, 서점	한국문학관협회, 네이버 문학관, 서점, 문학 행사 검색, 고양시청 홈페이지 행사캘린더, 문화체육관 광부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위치, 운영주체, 개관일
영상예술 자원	영화예술	영화관, 영화제작 관련 업체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경 기도고양시기본통계	위치, 스크린 수, 좌석 수, 개관일,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방송예술	방송사, 방송 관련 업체	경기데이터드림 홈페이지, 경기도 고양시기본통계, 신문기사	위치, 방송사 수, 종사자 수, 개관일
생활문화자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경기도데이터드림, 국가도서관통 계시스템	위치, 도서관 수, 개관일, 공간구성, 운영인력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청소년문화시설	2018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위치, 개관일, 운영 주체

자료: 백선하·라도삼·이정현,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와 분포특성』, 2015, pp.9-11.

제2절 역사문화자원 분포 현황

1. 주요 조사대상

고양시는 1기 신도시(일산)로 인하여 외부적으로는 호수공원의 노래하는 분수대 등 도시의 이미지를 가진 지역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풍부한 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이 있었던 곳이며, 고려 말 공직자인 최영 장군의 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고려의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恭讓王)의 능(陵)이 있는 역사적인 지역이다(윤이덕, 2012: 6).

본 연구에서 역사문화자원의 대상은 유형문화재와 무형의 문화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¹⁾ 문화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국가지정문화재, 경기도지정문화재, 고양시향토문화재로 나뉘며, 각각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명승, 등록문화재, 지방문화재,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세분화된다. 이 외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문화재 관련 시설(박물관 및 전통문화보존 전수시설)을 포함한다. 박물관은 과거의 기록을 수집·보존·전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사문화자원으로 분류한다(백선희·라도삼·이정현, 2015: 92).

문화순환주기 이론에서 살펴보면 고양시에 분포하는 국가 지정·경기도 지정·유네스코 지정 문화재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창작에 속한다. 박물관의 과거의 기록을 경우 수집·보존·전시하는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전시/발표/전승에 속하며, 고양시의 전통문화 보전·전수시설 역시 전시/발표/전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¹⁾ 본 연구는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와 분포특성(2015)의 조사 지표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미래유산은 서울시에서 특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 따라서 미래유산의 경우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3-2] 역사문화자원 조사 지표

구분	내용	자료 출처
문화재	국가 지정문화재 (창작) -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명승, 등록문화재	고양시청>교육문화국>문화유산관광과
	경기도 지정문화재 (창작) - 유형,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창작)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World Heritage Centre)
그 외	박물관 (전시/발표/전승)	2018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네이버 박물관 검색
	전통문화보전 전수시설 (전시/발표/전승) - 국악원, 전수회관, 지방문화원	2018 전국문화기반시설, 네이버 국악원, 전수회관 검색

자료: 백선혜·라도삼·이정현.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와 분포특성』, 2015, pp.9-11.

2. 문화재 분포 현황

1) 고양시의 문화재 현황

2019년 1월 기준으로 고양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3개, 경기도지정문화재 53개, 고양시향토문화재 63개로 총 139개의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다.

[표 3-3] 고양시 문화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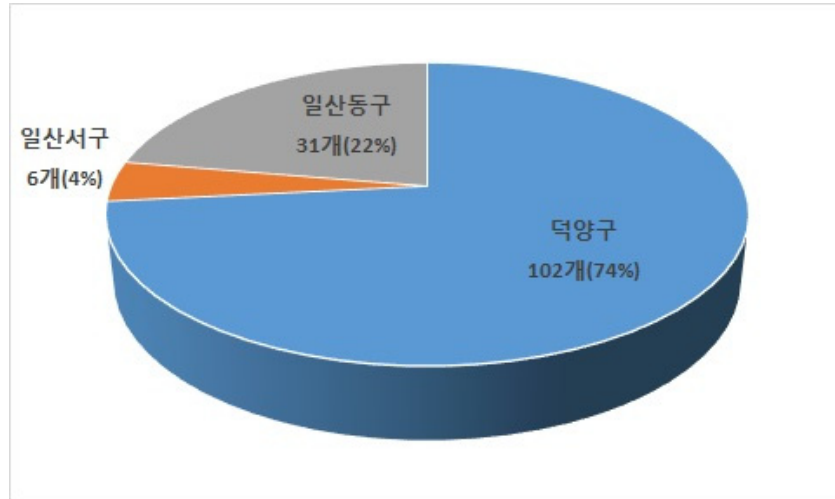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기념물	중요 무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명승	등록 문화재	지방 문화재	민속 문화재	문화재 자료	합계
국가	6	7	1		1		1	7				23
경기도				6		6			28	2	11	53
고양시									63			63
총 계												139

고양시는 총 139개의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덕양구에 102개로 문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산 동구에 31개로 나타났으며, 일산 서구에 6개로 나타나 문화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고양시 지역별 문화재 현황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기념물	중요 무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명승	등록 문화재	지방 문화재	민속 문화재	문화 재자료	합계
덕양구	2	7		4	1	4	1	5	67	1	10	102
일산서구			1	1		1		2		1		6
일산동구	4			1		1			24		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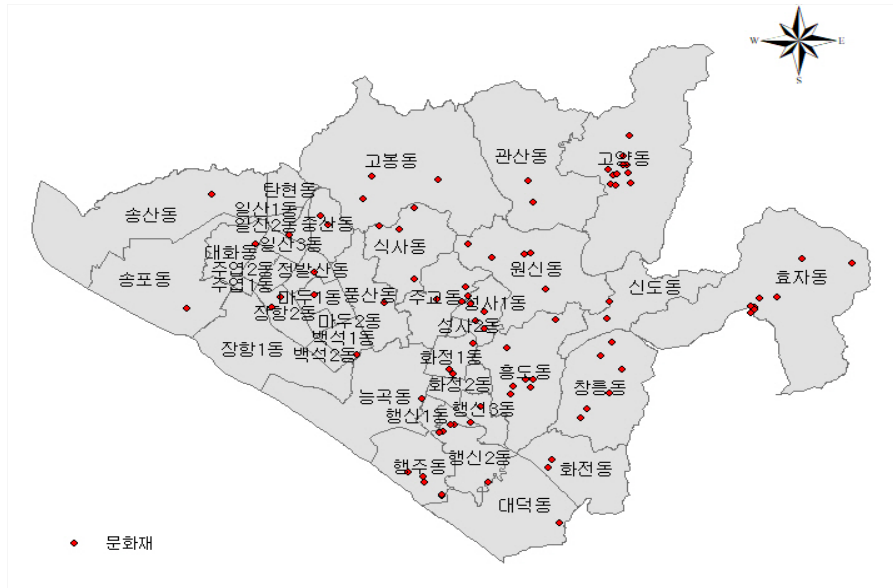
[그림 3-2] 지역별 문화재 분포 현황



²⁾ 덕양구는 면적(165.49km²)이 일산 동구(59.8km²)와 서구(42.8km²)에 비해 넓기 때문에 생활권에 따라 덕양구 북부와 남부로 구분된다. 문화재의 경우 생활권에 관계없이 오래전부터 위치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덕양구 북부와 남부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구분	행정동(법정동)
덕양구 남부	능곡동(토당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대덕동(현천동, 덕은동), 성서1·2동(성사동), 주교동(주교동), 행신1·2·3동(행신동, 강매동), 행주동(행주내동, 행주외동), 화정·2동(화정동)
덕양구 북부	고양동(고양동, 벽제동, 선유동, 대자동), 관상동(관산동, 내유동), 삼송동(삼송동, 오금동), 원신동(원당동, 신원동), 창릉동(용두동, 동산동, 지축동), 화전동(화전동, 향동동), 효자동(효자동, 북한동), 흥도동(원흥동, 도내동)

[그림 3-3] 문화재 위치 현황



2) 고양시의 유네스코 문화재

고양시에 소재한 문화재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는 서오릉과 서삼릉이 있다. 서오릉과 서삼릉은 조선왕릉 42기 중 8기의 왕릉을 말하는 것으로서, 2009년 조선왕릉 42기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고양시도 세계문화유산이 소재하는 도시가 되었다.

서오릉은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위치한 경릉(敬陵)·창릉(昌陵)·익릉(翼陵)·명릉(明陵)·홍릉(弘陵)의 5능을 의미하며, 총면적 55만 3,616평으로 구리시의 동구릉 다음으로 큰 조선왕조의 왕실 족분군이다(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7)³⁾. 서삼릉은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위치한 효릉(孝陵)·희릉(禧陵)·예릉(睿陵)의 3능을 의미한다.

3) 서오릉에는 5기의 왕릉 이외에도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順懷世子)와 공민 윤씨(恭嬪尹氏)가 묻힌 순창원(順昌園)이 있고, 영조의 후궁이며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빈 이씨의 묘를 신촌에서 옮겨온 수경원(綏慶園), 숙종의 후궁 희빈 장씨(禧嬪張氏)의 대빈묘(大嬪墓)가 있다.

서오릉은 풍수적(風水的)인 길지(吉地)에 왕실의 족분(族墳)을 이룬 것인데, 경릉(敬陵)·창릉(昌陵)·익릉(翼陵)·명릉(明陵)·홍릉(弘陵)의 5능을 의미한다. 이곳에는 5능 외에 명종(明宗)의 첫째 아들 순회세자(順懷世子)의 순창원(順昌園)이 경내에 있으며, 숙종(肅宗)의 후궁 장희빈(張禧嬪)의 대빈묘(大嬪墓)도 경내에 있다(고양시청 홈페이지).

서삼릉이란 한때 이곳에 있었던 중종(中宗)의 정릉(靖陵)을 중심으로 희릉(禧陵)·효릉(孝陵)이 있고, 그 근처에 왕실 묘지가 이루어져 명종(明宗)·숙종(肅宗) 이후 한말까지 역대의 후궁·대군·군·공주·옹주의 묘가 만들어졌으며, 고종(高宗) 원년에 예릉(睿陵)이 들어서면서, 효릉(孝陵)·희릉(禧陵)·예릉(睿陵)의 3능을 통칭하여 서삼릉이라 하였다(고양시청 홈페이지)⁴⁾.

3. 박물관 분포 현황

고양시의 박물관은 11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덕양구 북부에 박물관이 가장 많았고 일산 동구와 서구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덕양구 북부 5개소(45.5%), 덕양구 남부 4개소(36.4%), 일산 서구 1개소(9.1%), 일산 동구에 1개소(9.1%)로 분포되어 있어 덕양구 북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5] 고양시 박물관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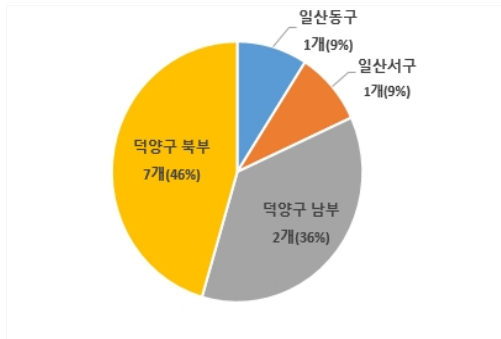
소재지별	운영주체별		국립		공립		대학		사립		합계	
	1	2	1	2	1	2	1	2	1	2	1	2
동부(일산동구)	-		-		-		-		1		1	
서부(일산서구)	-		-		-		-		1		1	
남부(덕양구)	1		1		-		-		2		4	
북부(덕양구)	-	1	1	2	1	1	1	1	3	5	5	9
합계	1		2		1		1		7		11	

(2019년 9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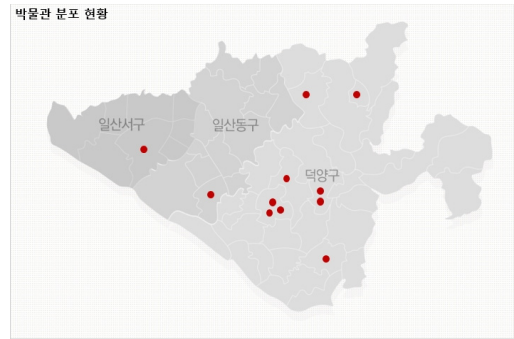
4) 고양시청>덕양구소개>우리구소개>가볼만한곳

(http://www.goyang.go.kr/dygu/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067&q_clCode=1) 접속일 2019.10.21.

[그림 3-4] 지역별 박물관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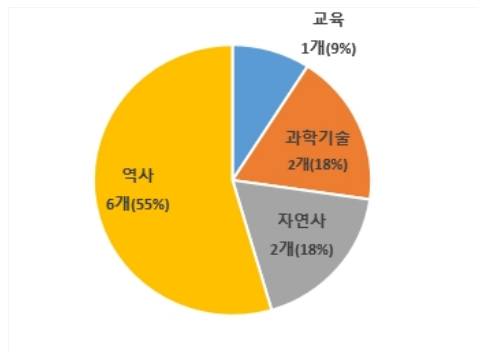
[그림 3-5] 박물관 위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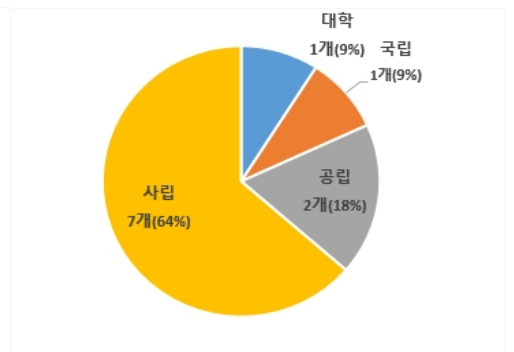
설립운영주체를 살펴보면 고양시에는 사립박물관이 가장 많다. 사립 박물관 7개소, 공립 박물관 2개소, 국립박물관 1개소, 대학박물관 1개소로 나타났다.

전시 주제별로는 역사를 주제로 한 박물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박물관은 6개소, 자연사박물관은 2개소, 과학기술박물관 2개소, 교육박물관 1개소로 나타났다⁵⁾.

[그림 3-6] 주제별 박물관 현황



[그림 3-7] 운영주체별 박물관 현황



5) 서울연구원(2015)의 분류에 따라 박물관을 종합박물관, 예술계박물관, 역사박물관, 교육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과학기술박물관으로 구분하였다. 예술계박물관은 음악, 공예, 회화, 조각, 건축, 도자, 가구, 서예를 포함하고, 역사박물관은 문화사, 패총, 고문서, 민속마을, 기념관, 향토유적지, 의상, 도서를 포함한다. 교육박물관은 어린이, 학교교육, 산업교육을 포함하며, 자연사박물관은 전체, 지구지질, 광물, 인류, 민족, 동물, 식물, 해양, 화석, 환경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박물관은 산업, 기술, 과학, 농업, 체신, 정보, 통신, 교통을 포함한다(백선혜·라도삼 이정현, 2015: 56).

[표 3-6] 고양시 박물관 현황

명칭	위치	설립연도	시설 구분	등록 구분 ⁶⁾	소장 유물 종류	비고
국립여성사 전시관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2002.12.09.	국립	2종	근현대사, 지류, 민속품 등	
고양어린이 박물관	덕양구 화중로 26	2016.06.07.	공립	1종	금속, 초제, 나무 등	
고양가와지 뱀사박물관	덕양구 고양대로 1695 (농업기술 센터 내)	2014.03.19.	공립	등록	7mm 크기의 뱀사, 농기구 등	*2019년 4월에 경기도 지정 공립박물관으로 지정되어,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는 집계되지 않았음.
(재)중남미 문화원병설 박물관	덕양구 대양로 285번길 33-15	1994.10.07.	사립	1종	고고, 민속품 등	
쥬라리움 (구,테마동물원 ZooZoo)	덕양구 458번길 7-42(관산동)	2002.07.16.	사립	2종	동물	
증권박물관	일산동구 호수로 358-8	2004.05.27.	사립	1종	국내외 증권 자료	
배다리 숲 박물관	덕양구 성사동 470-1	2004.07.05.	사립	2종	양조업	
배다리골 민속박물관	덕양구 화정동배 다골길31	2011.05.10.	사립	1종	민속품	
유진민속 박물관	덕양구 원흥동 440-2	2009.11.30.	사립	1종	민속	
(주)일산씨월드 -한화아쿠아 플라네티일산	일산서구 한류월드로282	2014.04.01.	사립	1종	어류, 포유류 등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박물관	덕양구 화전동 200-1	2004.08.04.	대학	1종	금속, 항공기 부품, 항공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8.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제2종으로 구분하여 등록함.

운영인력을 살펴보면 평균 17.7명, 연평균 관람인원은 178,916명으로 나타났다. 정보가 없는 박물관 2개소를 제외한 9개소의 총 직원 수는 159명이었다. 인턴, 자원봉사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중 학예인력은 49명으로 전체 인력 중 31%를 차지하였고, 일반인력은 110명으로 6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1관당 직원 수 평균은 17.7명이며, 이 중 학예인력은 5.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7] 고양시 박물관 직원 현황

명칭	운영주체	학예인력 (명)	일반인력 (명)	1관당 평균 직원 수	1관당 평균 학예인력 수
국립여성사전시관	국립	3	3	17.7명	5.4명
고양어린이박물관	공립	8	8		
고양가와지뽕사박물관	공립				
(재)충남미문화원병설박물관	사립	2	10		
테마동물원 Zoozoo	사립	26	20		
증권박물관	사립	5	0		
배다골민속박물관	사립	1	0		
유진민속박물관	사립	2	1		
(주)일산씨월드-한화아쿠아플라넷일산	사립	1	67		
배다리박물관	사립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	대학	1	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8.

국공립박물관을 관람하는 인원보다 사립박물관을 관람하는 인원이 약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의 연 관람인원은 총 1,610,241명으로 국공립박물관이 301,506명으로 18.7%를 차지하고, 대학을 포함한 사립박물관이 1,308,735명으로 8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운영프로그램의 총계는 124개로 나타났다. 국공립박물관의 프로그램은 65개로 52.4%를 차지하였고, 사립박물관의 프로그램은 59개로 47.6%를 차지하여 국공립박물관의 운영프로그램 수가 사립박물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8] 고양시 박물관 관람인원 및 운영프로그램 현황

명칭	운영주체	연관람 인원(명)	일평균관람인원 (명)	운영프로그램 총계(개)
국립여성사전시관	국립	51506	175	2
고양어린이박물관	공립	250000	806	63
고양가외지법씨박물관	공립			
(재)중남미문화원병설박물관	사립	52000	142	5
테마동물원 Zoozoo	사립	212406	582	12
증권박물관	사립	19135	66	5
배다골민속박물관	사립	114617	350	5
유진민속박물관	사립	10577	38	15
(주)일산씨월드-한화아쿠아플라넷일산	사립	860000	2356	12
배다리박물관	사립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	대학	40000	130	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8.

4. 전통문화자원 분포 현황

1) 고양시의 무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 2항에 의하면 무형문화재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고양시의 무형문화재는 총 13개로 나타났다. 지정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국가 지정의 중요 무형문화재는 불화장 1개이다. 불화(佛畵)는 불교의 종교적 이념을 표현한 그림으로 불탑, 불상처럼 신앙대상이다. 불화 제작 기능은 단청장 보유자에 의해 전승되어 왔으나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 종목으로 분리되어 불화장으로 지정되었다(고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경기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는 고양 송포 호미걸이, 고양 상여회다지소리, 경기소리 휘몰이잡가, 금은장, 환도장, 경기도당굿 시나위춤 등 6개이다.

- 고양 송포 호미걸이: 송포 평야에서 농사를 모두 끝낸 뒤 내년을 대비하여 호미를 씻어 걸어두는 것에서 유래된 호미걸이는 여름 동안 농사를 지으며 피로해진 몸을 쉬며 노는 잔치의 의미를 가진 민속놀이이다(고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 고양 상여회다지소리: 회다지소리는 무덤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흙에 헛가루를 섞어 넣고 다지는 일을 의미한다. 김녕김씨의 김유봉(1725년생)이 부모님의 장례 시 행했던 상례문화가 그 기원이며 고양시의 대표적인 민요이다(고양 사이버역사박물관 홈페이지).
- 경기소리 휘몰이잡가: 잡가(雜歌)란 조선 후기 서민층에서 주로 불렀던 민속적인 성악곡으로, 사설체의 긴 노랫말을 가졌으며, 주로 전문 소리꾼들이 불렀다(고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 금은장은 전통적인 금은 장신구를 재현하며 금은세공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장인을 의미한다.
- 환도장은 환도를 만드는 장인으로 환도란 칼집이 있어 고리를 달고 고리에 끈을 끼워 그것을 허리에 찬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칼자루가 짧은 외날의 칼을 대부분 환도라고 불렀다(고양시 사이버역사박물관 홈페이지).
- 경기도당굿 시나위춤: 경기도 남부에 해당하는 부천, 시흥, 안산, 오산, 화성, 수원, 경기 광주, 안성 등의 마을굿을 경기도당굿이라 한다. 경기도의 무속적 전통을 배경으로 무대 양식화한 경기도당굿 시나위춤을 의미한다(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고양시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는 풍동당산목 및 산치성, 정발산 도당굿, 성석 진밭 두레패, 백석동 흰돌제, 고양 들소리, 고양 최영장군 위령굿 등 6개가 있다.

- 풍동당산목 및 산치성: 풍동마을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도당제의 하나이다(고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 정발산 도당굿: 정발산 주변에 있는 장항, 마두, 다밭, 강촌, 설촌, 냉촌 지역 6개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치루는 공동체의 제사와 축제를 의미한다(고양 사이버역사 박물관).
- 성석 진밭 두레패: 진밭 두레패 놀아놀이는 성석동 진밭마을 일대에서 행해지는 농악놀이로, 제금(무속음악에 연주되는 악기)이 있는 것과 범고(작은 북)의 숫자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고양 사이버역사박물관).
- 백석동 흰돌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매년 음력 3월초 길일에 맞춰 백석동민들과 함께 지내는 마을 제례를 의미한다(고양 사이버역사박물관).
- 고양 들소리: 옛 고양군 중면 백석리와 식사리에서 수백 년 전승되어 내려오던 순수한 고양지역 토박이 소리꾼의 맥을 이어온 향토민요(농요)이다(고양 사이버역사박물관).
- 고양 최영장군 위령굿: 고려 말의 명장 충신인 최영 장군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매년 펼쳐지는 굿판을 의미한다. 장군거리 등에서는 작두를 타기도 한다(고양 사이버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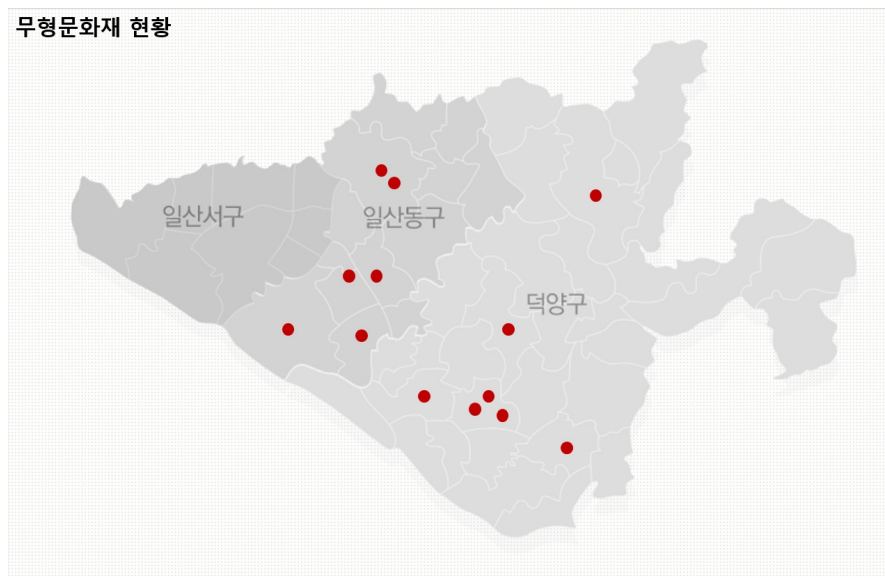
고양시 무형문화재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덕양구 남부 5개(38.5%)로 가장 많이 분포해 있었고 일산 동구 6개(46.2%), 덕양구 북부 2개(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송포호미걸이 보존회가 일산 서구에 있었으나 2012년 7월 10일에 일산 동구로 이전하여 일산 서구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7) “송포호미걸이 장항동에 새 둥지”, 고양신문(2012.7.23.), <http://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접속일 2019.10.23.

[표 3-9] 고양시의 무형문화재 현황

구분	명칭	지정일자	위치
중요무형문화재(1)	제118호 불화장	06.01.10.	덕양구 대자동243-13
무형문화재(6)	제22호 고양송포호미걸이	98.04.13.	일산동구 장항동
	제27-4호 고양 상여회다지소리	17.06.16.	덕양구 무원로54번길
	제31-1호 경기소리 휘몰이잡가	16.11.08.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제43호 금은장	05.02.07.	덕양구 화전동
	제62호 환도장	17.11.21.	일산동구 성석동
	제64호 경기도당굿 시나위춤	18.06.01.	덕양구 행신동
향토문화재(6)	제40호 풍동당산목 및 산치성	05.7.29	일산동구 풍동근린공원
	제41호 정발산 도당굿	05.07.29	일산동구 마두동, 정발산동 일원
	제42호 성석 진발 두레패	05.07.29	일산동구 성석동 일원
	제48호 백석동 환돌제	07.08.10	일산동구 백석동 1235
	제57호 고양 들소리	10.07.29	덕양구 행신2동 733-2
	제61호 고양 최영장군 위령굿	12.12.10	덕양구 토당동 879-9

[그림 3-8] 무형문화재 위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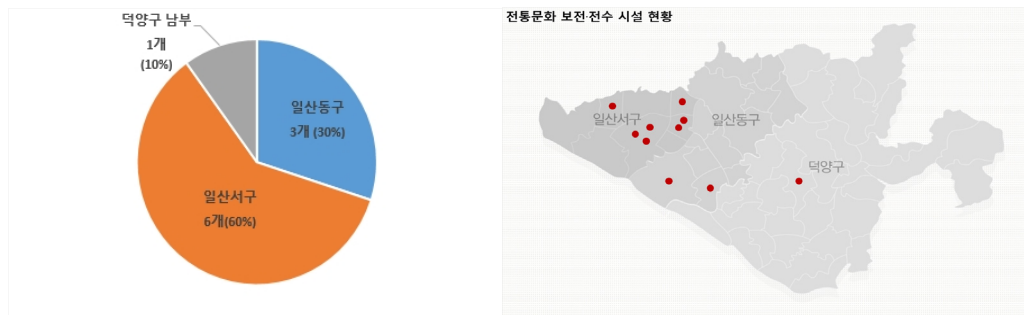


2) 고양시의 전통문화 보전·전수시설

전통문화 보전·전수시설은 국악원, 전수회관, 지방문화원으로 구분한다. 고양시는 총 10개소의 전통문화 보전·전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8개소의 국악원과 1개소의 전수회관, 1개소의 지방문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양시 전통문화 보전 전수시설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일산 서구에 6개(60%)가 분포해 있었고, 일산 동구에 3개(30%), 덕양구 남부에 1개(10%)가 운영 되고 있었다. 덕양구 북부는 전통문화 보전 전수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전통문화 보전·전수시설 지역별 분포 현황 [그림 3-10] 전통문화 보전·전수시설 위치 현황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송포 전수회관은 송포 호미걸이 보존회에서 농부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는 들소리 중에 하나인 고양 송포 호미걸이를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 2007년 7월20일에 개관하였다.⁸⁾

고양문화원은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하며 1984년 2월23일 설립되어 행주문화제를 비롯하여 전통문화 상설 공연, 정월대보름 달맞이, 오월단오제, 행주나루 강풍어제 등 민속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8) “고양 송포호미걸이 전수관 20일 개관”, 고양신문(2007.7.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698295>. 접속일 2019.10.23.

[표 3-10] 고양시 전통문화 보전 전수시설 현황

구분	명칭	위치
국악원	박은정판소리연구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838번길 73-1
	전통타악예술원 향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56
	고양국악누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838번길73-1
	고양국악어울림소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430번길 8-5
	다인전통국악연구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32-1
	이해선 경기민요연구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29
	울려 한중일국악그룹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223 현대 에뜨레보
	한국국악협회 고양시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119 (성사동)
전수회관	송포전수회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60번지 802호
지방문화원	고양문화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280

제3절 예술문화자원 분포 현황

1. 주요 조사 대상

예술문화자원은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예술로 나뉜다. 예술문화자원 안에 각각의 자원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고양시는 문화예술시설 중에서도 공연장, 체육관, 미술관, 음악당, 극장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예술시설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고양시의 문화예술 공간은 2015년도 자료를 토대로 2017년에 조사된 바 있다. 공연 시설, 전시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공연장, 야외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화랑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비교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연도에 따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술문화자원을 문화순환주기 이론에서 살펴보면 종합예술시설과 공연예술, 시각예술은 모두 전시/발표/전승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문학예술은 문학관과 문학 관련 행사는 전시/발표/전승에 해당하지만 출판사, 인쇄소, 서점은 생산/보급에 해당한다.

[표 3-11] 예술문화자원 조사 지표

구분	내용	자료 출처
종합예술시설	고양시 문예회관,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 (전시/발표/전승)	시설 홈페이지,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공연예술	공연장 (전시/발표/전승)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취합 등록공연장 현황, 네이버 공연장 검색
시각예술	미술관 (전시/발표/전승)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네이버 미술관 검색
	화랑 (전시/발표/전승)	김달진미술연구소 전시공간 목록 ⁹⁾ 네이버 화랑 검색
	갤러리 (전시/발표/전승)	김달진미술연구소 전시공간 목록 네이버 갤러리 검색
	경매소 (전시/발표/전승)	네이버 경매소 검색
문학예술	문학관 (전시/발표/전승)	한국문학관협회, 네이버 문학관 검색
	문학 관련 행사 (전시/발표/전승)	고양시청 홈페이지 행사캘린더, 네이버 문학 행사 검색
	출판사/인쇄소 (생산/보급)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 인쇄사 검색시스템 ¹⁰⁾
	서점 (생산/보급)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네이버 서점 검색

자료: 백선혜·라도삼·이정현,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와 분포특성』, 2015, pp.9-11.

2. 종합예술시설 분포 현황

고양시의 종합예술시설은 고양시 문예회관,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 3개소이다. 고양아람누리와 고양어울림누리는 경기도 내에서 공연과 전시가 가장 활발한 시설들 중 하나이다.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79)에 의하면 경기도 내에서 문화예

9) 김달진미술연구소 <색인> 전시공간(<http://www.daljin.com/?WS=51&area=4>) 접속일 2019.10.23.

10) 문화체육관광부 운영 출판사 인쇄사 검색시스템(<http://book.mcst.go.kr/html/system/index2.php>) 접속일 2019.10.23.

술 활동이 가장 많은 시설들 상위 5곳을 정리하였더니 1위가 성남아트센터 224건이었고, 고양아람누리가 168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고양어울림누리도 98건으로 상위 5곳 안에 들어 고양시의 종합예술시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고양시의 종합예술시설 중 2곳은 덕양구 남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1곳은 일산 동구에 있었다. 일산 서구에는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문예회관의 경우 고양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고양아람누리와 고양어울림누리는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을 맡았다.

개관일을 살펴보면 고양시 문예회관이 1989년에 제일 먼저 개관하였고, 고양어울림누리가 2004년에, 고양아람누리가 2007년에 개관하였다. 면적을 살펴보면 고양아람누리가 제일 넓었고 고양시 문예회관이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았다. 고양시 문예회관은 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일수가 9일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공연장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2] 고양시의 종합예술시설 현황

시설명	고양시문예회관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문예회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
운영기관명	고양도서관리공사	(재)고양문화재단	(재)고양문화재단
운영기관 성격	공공기관 위탁	민간기관 위탁	민간기관 위탁
홈페이지	http://goart.gys.or.kr	www.artgy.or.kr	www.artgy.or.kr
개관일	1989.09.01.	2007.05.04	2004.09.01
연면적	4,919.80m ²	56,351.20m ²	43,744.30m ²
총 직원 수	5명	84명	-
전문 직원 수	-	23명	-
공연 일수	9일	359일	319일
전시 일수	-	304일	222일
공연유료관객	6,000명	65,684명	71,661명
총 이용자 수	82,490명	245,259명	191,791명
연간운영비	221,000,000원	5,511,000,000원	12,468,000,000원
공연및대관수입	59,000,000원	1,319,000,000원	592,000,000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8.

1) 고양시 문예회관

고양시 문예회관은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에 위치하며, 1989년 9월 1일 군민회관으로 개관하였다. 1992년 2월1일 고양시로 승격하면서 군민회관의 명칭이 고양시 문예회관으로 변경되었다.

고양시 문예회관의 시설을 살펴보면 공연장과 체육관이 있으며 공연장은 1, 2, 3층에 걸쳐 총 468석의 객석(1층의 354석, 2~3층에 114석)을 갖추고 있다. 체육관은 2,339㎡의 면적을 보유하며 그 중 경기장은 758㎡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총 320석의 객석을 갖추고 있다(고양시 문예회관 홈페이지)¹¹⁾.

고양시 문예회관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며 총 직원 수는 5명이며 전문 직원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일수는 1년 중 9일인 것으로 나타났고 공연유료관객은 약 6,000명이다. 총 이용자 수는 82,490명으로 집계된다. 연간 운영비는 221백만 원이며 공연 및 대관수입은 5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668-669).

[표 3-13] 고양시 문예회관 규모

총 부지 면적	14,032㎡		
연면적	4,919㎡		
공연장 면적 및 객석	2,027㎡		
	1층	815㎡	354석
	2층	493㎡	114석
	3층	418㎡	
체육관 면적	2,339㎡ (경기장 758㎡)		320석

2) 고양아람누리

고양아람누리는 일산 동구 중앙로 1286에 위치하며 2007년 5월 4일 개관하였다.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 공간을 표방하며 준공됐다(한국강구조학회, 2007: 89).

오페라극장인 아람극장, 음향설비를 갖춘 아람음악당, 디지털실험극장인 새라새극

¹¹⁾ 고양시 문예회관 홈페이지(<http://goart.gys.or.kr//intro/infor.php>) 접속일 2019.10.23.

장, 가변형 파티션을 갖춘 아람미술관, 야외극장인 노루목야외극장, 그 밖에 문화예술 강의시설과 카페, 레스토랑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진 아람마슬로 구성된다.

아람극장은 1~4층에 걸쳐 총 1,887석의 객석을 갖추고 있다. 아람음악당은 1~2층에 걸쳐 1,449석의 객석을 갖추고 있다. 새라새극장은 기존의 무대 개념에서 벗어나 객석이 16등분으로 구분되어 위 아래로 움직이는 독특한 형태로 304개의 객석을 다양한 무대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노루목야외극장은 정발산에 둘러싸인 녹지공간과 공연장이 어우러지며 1,000석의 객석을 갖추고 있다.

아람미술관은 1,300㎡ 크기로 이동형 벽면을 도입하여 전시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양도 전시가 가능한 공간이다. 아람마슬 지하2층에 위치한 갤러리누리는 제1전시장, 제2전시장으로 구성되며 개인전, 그룹전, 어린이교육체험전 등을 전시한다(고양아람누리 홈페이지).

[표 3-14] 고양아람누리 규모

연면적	56,351㎡		
공연장 객석	아람극장	15,906㎡	1,887석
	아람음악당(하이든홀)	5,643㎡	1,449석
	새라새극장	1,699㎡	304석
아람미술관	1,300㎡		
갤러리누리	제1전시장	271.07㎡	
	제2전시장	198.35㎡	
노루목야외극장	1,076㎡		1,000석
아람마슬	지상2~3층 식당 지하1층 생활문화센터, 지하2층 갤러리누리, 지하3층 갤러리몰		

고양아람누리는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총 직원 수는 84명이며 전문 직원 수는 23명으로 나타났다. 공연일수는 1년 중 359일이었고, 전시일수는 304일로 나타났다. 공연유료관객은 65,684명이었고 총 이용자 수는 245,259명으로 집계된다. 연간운영비는 5,511백만 원이며 공연 및 대관수입은 1,31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668-669).

3)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어울림누리는 덕양구 어울림로 33에 위치하며 2004년 9월 1일 개관하였다. 공연장과 문화예술 교육시설,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클래식, 대중음악, 연극, 무용,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어울림극장, 가족·어린이 중심의 공연이 열리는 별모래극장, 체험 위주의 전시를 하는 어울림미술관, 예술교육강좌가 개설되는 별따기배움터, 야외음악회, 연극, 마당극이 가능한 꽃메야외극장으로 구성된다. 체육시설은 성사얼음마루(빙상장), 꽃우물수영장(수영장·체육관), 별무리경기장(잔디운동장)으로 구성된다.

어울림극장은 1, 2층에 걸쳐 관객 1,21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석을 갖추고 있고, 무대 수용 인원은 200명이다. 별모래극장은 1층이며 366석의 객석을 갖추고 있다. 어울림미술관은 제1전시실, 제2전시실로 구성되어 회화, 공예, 사진, 설치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획전시가 이뤄진다. 어울림미술관은 가족과 어린이 중심의 미술체험형 전시와 지역미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를 하고 있다. 꽃메야외극장은 관람객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이다. 별따기배움터는 어린이 중심의 공연과 예술 영재교육 공간이다. 지하1층과 지상3층에 전시실 및 도서관을 갖추고 있고, 각종 취미 강좌와 세미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고양어울림누리 홈페이지)¹²⁾.

고양어울림누리는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한다. 공연일수는 1년 중 319일이었고 전시일수는 222일로 나타났다. 공연유료관객은 71,661명이며 총 이용자 수는 191,791명으로 집계된다. 연간 운영비는 12,468백만 원이며 공연 및 대관수입은 59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668-669).

¹²⁾ 고양문화재단>고양어울림누리 http://www.artgy.or.kr/oulim/oulim_introduction.aspx. 접속일 2019.10.23.

[표 3-15] 고양아울림누리 규모

연면적	43,744㎡		
공연장 객석	아울림극장	13,645㎡	1,218석
	별모래극장	2,130㎡	374석
아울림미술관	제1전시장	296㎡	
	제2전시장	235㎡	
별따기배움터	지상1층 아울림 미술관, 고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지상2층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지상3층 고양문화재단 사무실 지하층 구내식당		
꽃메아외극장	300㎡ (300석)		

3. 공연예술자원 분포 현황

공연법 제2조에 의하면 공연이란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의하면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을 살펴보면 문화시설을 상세 분류하고 있다. 종합공연장은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을 의미한다. 일반 공연장은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을 의미한다. 소공연장은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을 의미한다.

공공이란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문화시설을 의미한다. 민간이란 개인 및 전문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을 의미한다(공공미술프리즘, 2017: 53).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고양시에 등록된 공연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연장을 규모로 살펴보면 고양시는 공공에서 객석 수가 많은 종합공연장과 일반 공

연장을 운영하는 반면, 민간에서는 대규모 공연장 보다는 소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고양시는 일반 공연장과 소공연장이 가장 많이 있었다. 종합공연장이 3개소, 일반 공연장이 6개소, 소공연장이 6개소로 나타났다.
- 2015년에는 12개소였던 공연장이, 2017년에는 15개소로 증가하였는데, 모두 민간시설에서 소규모공연장이 증가한 것이었다.

[표 3-16] 고양시 공연장 규모별 현황

	합계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2015	12	3	3	0	6	5	1	3	0	3
2016	15	3	3	0	6	5	1	6	0	6
2017	15	3	3	0	6	5	1	6	1	5

공연장을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고양시에는 공공시설로 분류되는 공연장이 9개소, 민간시설로 분류되는 공연장이 6개소로 나타났다.

공공시설은 고양시문예회관, 토당청소년수련관, 고양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꽃메 야외극장, 아람극장, 새라새극장, 노루목야외극장 등이 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은 2016년까지 민간 시설이었다가 2017년부터 공공시설로 운영주체가 변화하였다. 민간시설은 나가수공연장, 래미어린이극장, 우경아트홀, 벨엘뮤직홀, 터 시어터, 통통이소극장(뽀로로파크 키텍스점)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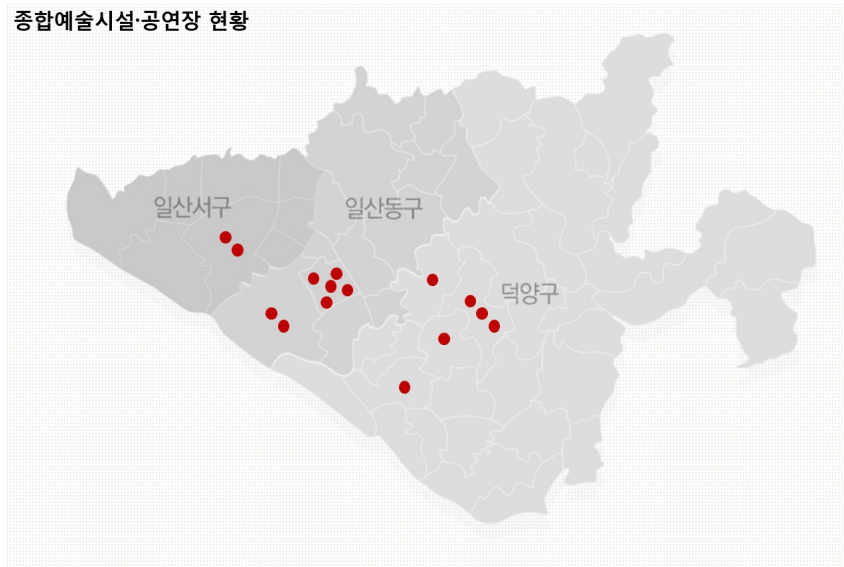
[표 3-17] 고양시의 공연장 현황

시설명	시설 구분	개관일자	공연장 등록일	공연장 면적(m ²)	무대 면적(m ²)	객석 수	구동무대 기계·기구수
고양시 문예회관	공공	1989.09.01.	2004.02.07	815	111	468	14
고양어울림극장	공공	2004.07.31.	2004.08.26.	5,819	1,718	1,218	128
아람극장	공공	2006.12.28.	2007.04.24.	5,133	1,690	1,887	70
아람음악당	공공	2006.12.28.	2007.04.24.	2,499	307	1,449	8
노루목야외극장	공공	2006.12.28.	2007.04.24.	1,300	300	980	7
별모래극장	공공	2004.07.31.	2004.08.26.	1,773	443	366	54
새라새극장	공공	2006.12.28.	2007.04.24.	674	249	300	36
꽃메야외극장	공공	2004.07.31.	2007.04.24.	454	92	454	0
토당청소년수련관	공공	2003.10.06.	2003.10.10.	1,878	96	286	11
나가수공연장	민간	2012.02.22.	2012.02.22.	228.8	20	60	15
레미어린극장	민간	2014.11.01.	2014.11.18.	324.6	70	209	14
우경아트홀	민간	205.01.28.	2015.01.28.	222.7	32	153	0
벤엘뮤직홀	민간	2005.04.02.	2015.05.18.	437	27	363	4
터 시어터	민간	2000.10.06.	2016.01.13.	370	66	214	3
통통이소극장(보로로파크 킨텍스점)	민간	2012.03.16.	2016.08.30.	140	26	100	2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등록공연장 현황(2017년 기준), 2019.

[그림 3-11] 종합예술시설 포함 공연장 위치 현황

종합예술시설·공연장 현황



공연장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공연장이 일산 동구에 분포해 있는 반면 일산 서구에는 공연장이 적게 분포하고 있었다.

- 공연장은 일산 동구에 7개소, 덕양구 남부에 6개소, 일산 서구에 2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양구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생활권에 따라 남부와 북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더니 공연장이 모두 덕양구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일산 동구에는 종합공연장 2개소, 일반 공연장 3개소, 소공연장 2개소가 분포해 있었고, 덕양구 남부도 종합공연장 1개소, 일반 공연장 3개소, 소공연장 2개소가 분포해 있었다. 그러나 일산 서구에는 소공연장 2개소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양구 북부에는 공연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고양시 공연장 규모별 현황

	합계	종합공연장			일반 공연장			소공연장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덕양구 남부	6	1	1	0	3	3	0	2	0	2
덕양구 북부	0	0	0	0	0	0	0	0	0	0
일산 동구	7	2	2	0	3	2	1	2	0	2
일산 서구	2	0	0	0	0	0	0	2	0	2
고양시	15	3			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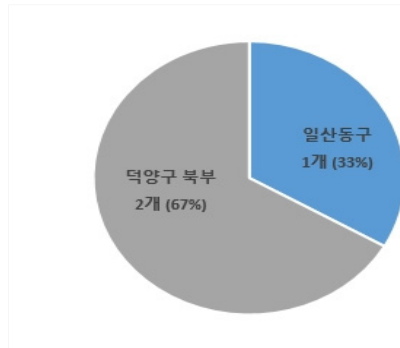
4. 시각예술자원 분포 현황

시각예술자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해당하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을 살펴보면 전시시설이란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을 포함한다. 이 중 박물관은 역사문화자원에 포함시켜 분류하였기 때문에 박물관은 제외하였다. 조각공원은 고양시에 목암미술관과 중남미문화원병설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시설을 찾을 수 없었고, 목암미술관은 미술관으로 분류되고 중남미문화원은 박물관에 포함된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시각예술자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미술관

고양시의 미술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미술관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미술관 3개소 중 2개소가 덕양구에 있었고 1개소가 일산 동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양구 남부와 덕양구 북부로 구분하였을 때 덕양구 북부에 미술관 2개소(66.7%), 일산 동구에 1개소(33.3%)가 분포해 있었고, 덕양구 남부와 일산서구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2] 미술관 지역별 분포 현황



[그림 3-13] 미술관 위치 현황



운영 주체별로 살펴보면 고양시의 미술관은 사립 2개소, 공립 1개소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5년에는 사립미술관(목암미술관) 1개소, 공립미술관(아람미술관) 1개소로 고양시에 총 2개소의 미술관이 집계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8년에는 사립미술관 2개소, 공립미술관 1개소로 고양시에 총 3개소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사립 미술관(포마자동차디자인 미술관) 1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공립미술관, 대학이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은 1개소도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고양시의 미술관 현황

시설명	시설 구분	개관일자	주소	부지 면적(m ²)	건물면적(m ²)	전시실 (m)
목암미술관	사립	1993.11.20.	덕양구 호국로 1963	6,596	568	432
포마자동차디자인 미술관	사립	2016.03.15.	덕양구 향뢰로 91	2,836	1,483	626
고양아람누리 아람 미술관	공립	2007.05.31.	일산동구 중앙로 1286	54,239	1,961	1,899

(2019년 9월 기준)

목암미술관은 조각가 김찬식의 작품과 다른 조각가들의 기획전 또는 개인전(1개의 기획전과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 개관일수는 200일이며 연 관람인원은

400명으로 집계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594).

포마자동차디자인미술관은 박종서 대표가 설립한 자동차디자인·예술 미술관으로 2개의 기획전과 10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 개관일수는 318일이며 연 관람인원은 927명으로 집계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594).

아람미술관은 4개의 기획/특별전과 17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 개관일수는 280일이며 일 평균관람인원은 92명으로 연 관람인원이 20,786명으로 집계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588).

2) 화랑

서울연구원(2015: 107)은 회화·서예·공예 등의 작품이 판매 또는 전시되는 시설을 화랑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명칭에 화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모두 화랑으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 화랑을 수집하되 화랑의 영어 표현인 갤러리가 포함된 경우도 조사대상이 되었다. 또한 작품이 판매되는 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술품·골동품 경매소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고양시에는 25개소의 화랑 또는 갤러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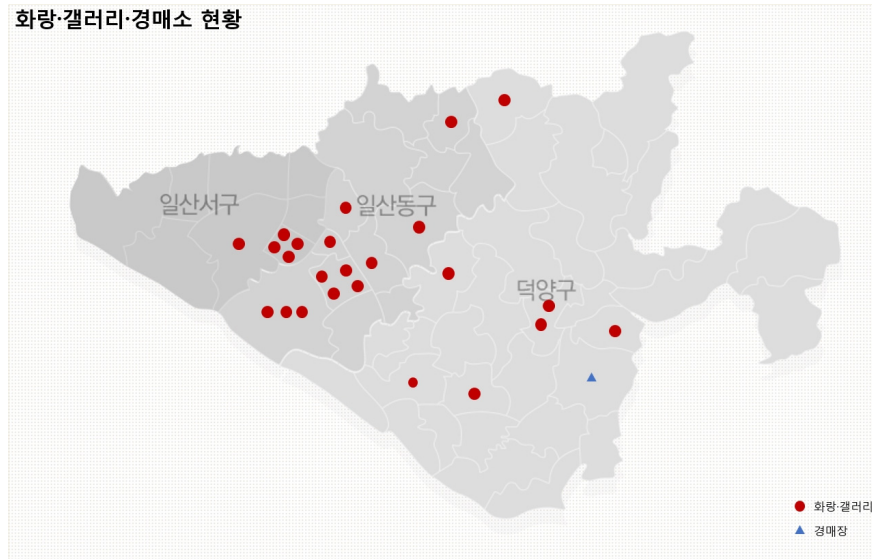
- 2015년에는 갤러리 누리, 고양시청갤러리600, 갤러리가온, 고양꽃전시관 호수갤러리, 롯데갤러리 일산, 갤러리 한, 김내현 화랑, 갤러리에니콜 등 8개소의 전시공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공공미술프리즘, 2017: 54).

- 2019년은 2015년에 비해 화랑 또는 갤러리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랑·갤러리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일산 동구를 중심으로 화랑·갤러리가 밀집되어 있었다.

- 일산 동구에 12개소, 일산 서구에 5개소, 덕양구 북부 5개소, 덕양구 남부에 3개소의 화랑 또는 갤러리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화랑·갤러리·경매소 위치 현황



[표 3-20] 화랑의 분포 현황

구분	명칭	주소	
화 랑 · 갤 러 리	롯데갤러리 일산점	일산 동구 (12)	중앙로 1283 롯데백화점일산점
	갤러리누리		중앙로 1286
	아트스페이스 애니꽃		애니꽃길 70
	갤러리 감성충만		중앙로 1200 삼희 골드 프라자 309호
	한량의 작업실		정발산로196번길 23-3 B102
	디지털한즈		하늘마을로 158 대방 트리플라운 비즈니스 타워
	예당		중앙로1275번길 86-23
	THE DH ART		위시티2로11번길 6-31
	선화도갤러리		중앙로1275번길 60-21 크리스탈빌딩
	아트슈퍼마켓		통일로1267번길 151
	미술관따라		정발산동 1237-4
	일산갤러리가온		마두동 815 일산동구청
	비갤러리	일산 서구	주엽로 98 문춘마을17단지아파트 상가 208호

	여화랑	(5)	중앙로 1455 대우시티프라자	
	예온갤러리		대화로398번길 8-8	
	김현숙갤러리		중앙로 1455 대우시티프라자	
	정글북아트갤러리		주엽동 81번지 뉴서울프라자 지하1층	
	고양시청갤러리600	덕양구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윤코캐리커처	남부	덕양구서정마을로25	
	비롯	(3)	덕양구 토당로 131-24 내안애양우아파트	
	아트아레나	덕양구 북부 (5)	덕양구 원흥3로 8 효산캐슬403호	
	민화		덕양구 서삼릉길 29	
	김내현 화랑		덕양구 내유길 265 TLBU화랑	
	아트인동산		덕양구 고양대로1940번길 39-17	
	경매소	보라골동품경매장		용두로 48

5. 문학예술자원 분포 현황

문학예술자원의 경우 다른 자원들처럼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연구원(2015)의 조사대상¹³⁾을 기준으로 삼았다. 고양시의 문학관, 문학 관련 행사, 출판사, 인쇄소, 서점이 조사대상이 되었다. 발표된 문학작품 수의 경우 문예연감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자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1) 문학관 및 문학 행사

고양시는 한국문학관협회에 등록된 문학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색을 통해 고양시에 김영진 문학관과 송강 문학관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문학관의

¹³⁾ 창작물의 규모를 파악해볼 수 있는 문학작품 발표 수를 비롯해서 창작물의 인쇄와 배급을 담당하는 출판사, 인쇄소, 서점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문학관, 문학 관련 행사를 조사하였다(백선혜·라도삼·이정현, 2015: 117).

지역별 분포 현황을 보면 2개소 모두 덕양구 북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강 문학관은 1998년 10월27일 개관하였고, 조선시대의 문장가인 송강 정철의 문학사적 자료, 민속보존관, 경기북부지역의 전통 농경, 생활용품을 전시보관하고 있다. 위치는 덕양구 신원동 송강마을이다.¹⁴⁾

김영진 성경시 문학관은 2011년 11월11일에 개관하였다. 시인이자 수필가인 김영진이 쓴 2천여 편의 시가 전시되어 있다. 위치는 경기도 덕양구 통일로 512번길 6-29(대자동)이다(김영진 문학관 홈페이지¹⁵⁾).

[표 3-21] 문학관 분포 현황

시설명	시설구분	개관일자	주소
송강 문학관	사립	1998.10.27.	덕양구 신원동 송강마을
김영진 성경시 문학관	사립	2011.11.11.	덕양구 통일로 512번길 6-29

고양시의 문학과 관련된 행사는 <전국어르신 백일장대회·문학작품 공모>, <전국 장애인문학제>, <송강정철문화축제>, <다선문학예술제>가 있다.

2019년 제10회를 맞은 <전국어르신 백일장대회·문학작품 공모>는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 및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된다. 백일장 대회는 당일 시제에 맞춰 글을 쓰며, 문학작품은 약 4주의 기간 동안 공모하여 시상한다.¹⁶⁾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전국장애인문학제>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았고,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문학적 자질을 발굴 및 개발하여 장애인의 자신감 향상 및 사회참여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한다.¹⁷⁾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가 주최하는 <송강정철문화축제>는 조선시대 문인인 송강 정철의 삶과 문학사적을 알리기 위해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17회째 개최되고 있다.¹⁸⁾

14) “정철문학 총집대성 고양 송강마을 송강문학관 개관”, 인천일보(1998.10.29.),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1>. 접속일 2019.10.23.

15) 김영진 문학관(<http://kyj1225.godohosting.com/>) 접속일 2019.10.23.

16) “고양시일산노인복, 제10회 어르신 백일장 성료” 법보신문(2019.06.24.)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871> 접속일 2019.10.24.

17) 올콘 공모전 대외활동 홈페이지(http://www.all-con.co.kr/uni_contest/436029) 접속일 2019.10.24.

사단법인 한국다선예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회 다선문학예술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며 기획되었다. 행주산성역사문화공원에서 평화 통일 나눔 전국 백일장을 열고,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평화의 소녀 전국 시낭송대회를 개최한다.¹⁹⁾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일산 동구에서 <전국어르신 백일장대회·문학작품 공모>, 일산 서구에 <전국장애인문학제>, 덕양구 남부에 <송강정철문화축제>, <다선문학예술제>가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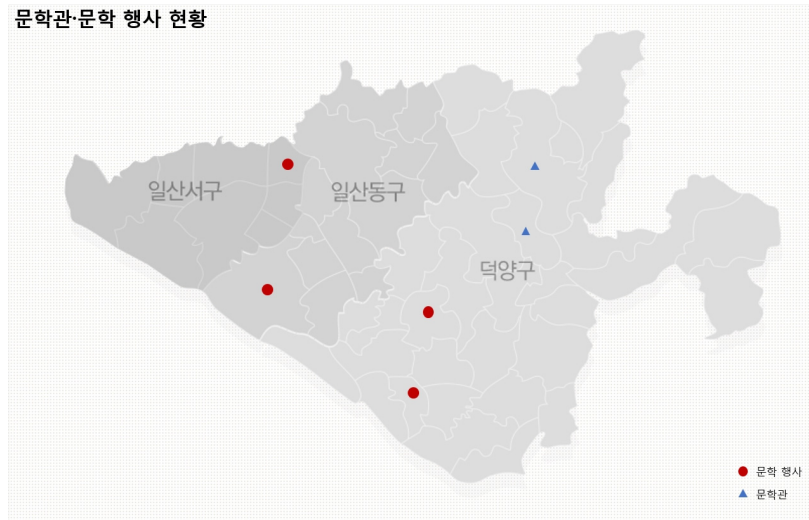
[표 3-22] 문화 관련 행사 현황

행사명	기간	주최	장소	주요내용
전국어르신 백일장대회 및 문학작품 공모	접수기간: 2019.5.13~6.7 백일장 대화: 6.13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 및 일산호수공원	전국 만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일장 대회와 문학작품 공모
전국장애인문학제	접수: 2019.2.18~3.17 심사: 2019.3.25~3.29 발표: 2019.4.3. 시상식: 2019.4.17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은 자유주제로 비장애인은 장애 관련 주제로 시문학, 산문학 공모
송강정철문화축제	2019.5.31.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	덕양구 화정역 문화광장	고양 송포 호미걸이 길놀이 공연, 송강 시 낭송, 전통무용, 가야금병창 등
다선문학예술제	접수기간: 2019.10.01.~11.15 행사일시: 2019.11.16	한국다선예술인협회	화정역 문화광장 및 고양행주산성 역사공원	시낭송대회와 백일장대회

18) “송강정철문화축제 31일 화정역광장서 열려”, 고양신문(2019.05.20.)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29>. 접속일 2019.10.24.

19) “제1회 한국다선문학예술제...고양시 문학축제로 자리매김 할 듯”, 신문고뉴스(2019.10.24.) <http://www.shinmoongo.net/131430>. 접속일 2019.10.24.

[그림 3-15] 문학관·문학 행사 위치 현황



2) 출판 및 인쇄²⁰⁾

고양시에 위치한 출판 관련 사업체는 2,197개소(100%)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산 동구에 1094개소(49.8%), 덕양구에 577개소(26.3%), 일산 서구에 526개소(23.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양시에 위치한 인쇄 관련 사업체는 529개소(100%)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산 동구 398개소(75.2%), 덕양구에 73개소(13.8%), 일산 서구 58개소(11.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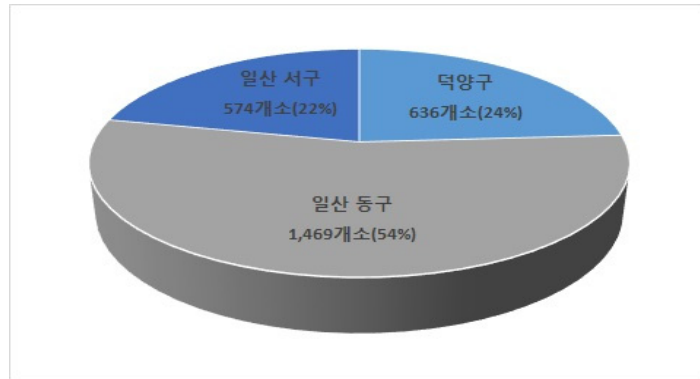
출판 및 인쇄업체는 총 2,649개소(100%)가 고양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산 동구에 출판업체와 인쇄업체가 1,439개소(54.3%) 분포하여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었고, 일산 서구에 574개소(21.7%)로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²⁰⁾ 고양시에서 출판과 인쇄를 같이 하는 사업체 77개소가 중복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에서 사업체의 주소가 구까지만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별 분포 현황에서 덕양구 남부, 북부를 구분하지 못하였다.

[표 3-23] 출판업 및 인쇄업 분포 현황

구분	출판업	인쇄업	출판 및 인쇄업
덕양구	577 (26.3%)	73 (13.8%)	636 (24.0%)
일산 동구	1,094 (49.8%)	398 (75.2%)	1,439 (54.3%)
일산 서구	526 (23.9%)	58 (11.0%)	574 (21.7%)
총계	2,197 (100%)	529 (100%)	2,649 (100%)

[그림 3-16] 출판업 및 인쇄업 지역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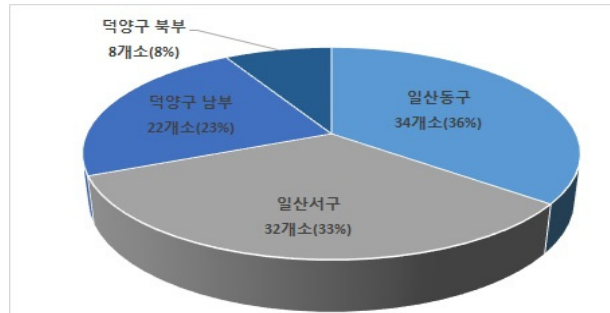


3) 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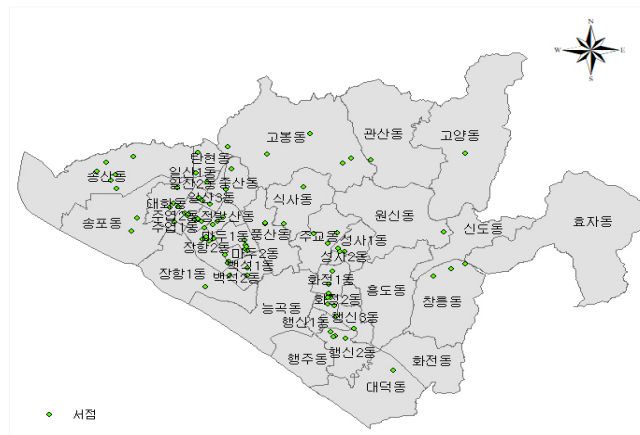
서점은 운영방식에 따라 기업 혹은 대형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대형 체인서점과 개인이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지역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역서점에서 더 세분화되어 독립서점으로 나뉘었다. 독립서점은 독립된 자본과 출판 시스템으로 만든 출판물을 취급한다(구선아·장원호, 2018: 100).

고양시의 서점은 96개소(100%)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산 동구 34개소(35.4%), 일산 서구 32개소(33.3%), 덕양구 남부 22개소(22.9%), 덕양구 북부 8개소(8.3%)로 나타났다.

[그림 3-17] 고양시의 서점 지역별 분포 현황



[그림 3-18] 고양시 서점 위치 현황



체인서점은 1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주요 체인서점으로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중고서점>, <더북스>, <북마트>, <개똥이네>, <아람북스> 등이 있고, 지역 서점으로는 <한양문고>, <지산문고>가 있다.

<한양문고>는 서점 안에 문구, 갤러리, 카페, 강의실, 세미나실을 마련하고 독서모임과 문화프로그램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²¹⁾

체인서점과 지역서점은 일산 동구에 9개소, 덕양구 남부에 4개소, 덕양구 북부에 2개소, 일산 서구에 2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21) 한양문고 홈페이지(<http://hanyangbook.com/>) 접속일 2019.10.24.

[표 3-24] 체인형 서점 현황

구분	위치		개소 수
교보문고	일산점(일산동구 중앙로 1036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 B1)	일산 동구	1
영풍문고	스타필드 고양점(덕양구 고양대로 1955 스타필드 3층)	덕양구 북부	1
알라딘 중고서점	일산점(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56 루비투스데이), 화정점(덕양구 화신로26번길 51 지하1층)	일산 동구 덕양구 남부	2
더북스	마두점(일산동구 일산로 219 지하1층)	일산 동구	1
북마트	탄현점(일산서구 일현로 43 (탄현동) 201호), 마두점(일산동구 일산로 228 강서빌딩 지층)	일산 서구 일산 동구	2
개똥이네	일산점(일산동구 고봉로 843)	일산 동구	1
아람박스	롯데백화점 일산점(일산동구 중앙로 1283 7층) 롯데마트 화정점(덕양구 화중로 66 1층)	일산 동구 덕양구 남부	2
한양문고	행신점(덕양구 중앙로558번길 13 지하1층), 화정점(덕양구 화신로272번길 67 지하1층), 라페스타점(일산동구 중앙로 1305-56 2층), 마두점(일산동구 중앙로 1182 올림픽 스포츠센터 B2), 주엽점(일산서구 중앙로 1388 지하1층)	덕양구 남부 덕양구 남부 일산 동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	5
지산문고	고양점(덕양구 해음로 8),(북부) 백마점(일산동구 일산로 238 대일상가, 지하1층)	덕양구 북부 일산 동구	2

고양시에는 체인서점 외에도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표방하는 <행복한 책방> 1개소, 문학전문 서점 1개소, 독립서점 3개소, 북카페 4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 서구에 위치한 <행복한 책방>은 독서운동 시민단체인 (사)행복한아침독서의 지역서점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고, 고양시도서관센터 동네서점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 2개의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²²⁾

고양시의 독립서점은 <고메박스>, <이야기마을>, <플라너즈> 등 3개소가 덕양

22) “고양시도서관센터 동네서점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내일신문(2019.10.1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7984. 접속일 2019.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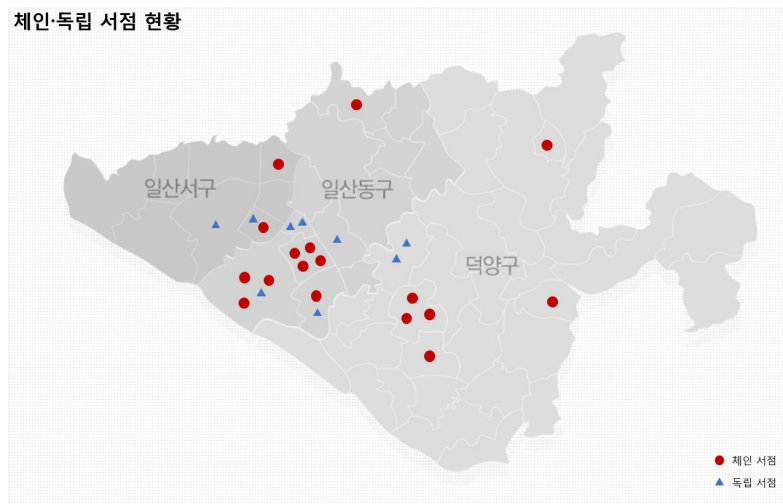
구 남부와 일산 서구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 동구에 위치한 문학전문 서점 <미스터 버티고>는 주로 소설, 문학서적을 위주로 판매하며 북 카페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외의 북 카페는 <라비브북스>, <북앤드>, <책방이름>, <아르띠잔북앤바> 등 4개소가 일산 동구에 분포하고 있다.

[표 3-25] 고양시 독립서점 및 북 카페 현황

구분		위치		개소 수
독립서점	고메북스	일산서구 중앙로 1470 동부선프라자 B동 128호	일산 서구	3
	이야기마을	덕양구 원당로113번길 48-7	덕양구 남부	
	플라노즈	덕양구 원당로59번길 49-24 203호	덕양구 남부	
북카페	라비브북스	일산동구 무궁화로141번길 16-7	일산 동구	4
	북앤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50-38 202호	일산 동구	
	책방이름	일산동구 무궁화로8-28	일산 동구	
	아르띠잔북앤바	일산동구 대산로11번길76-7	일산 동구	
문학전문	미스터 버티고	일산동구 강송로73번길 8-2	일산 동구	1
마을의 문화사랑방	행복한 책방	일산서구 일산로741번길 13 1층	일산 동구	1

[그림 3-19] 체인서점·독립서점 위치 현황



제4절 영상예술자원 분포 현황

1. 주요 조사대상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경계는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프로슈머와 같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산업의 예술화가 되었기 때문이다(최혜실, 2004: 23). 영상예술자원은 영화, 방송으로 구성되며,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구분 지을 때 중간에 위치한다. 직접 관객과 만나는 현장성이 부족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문화산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영상예술자원은 원작성(originality)을 가지며, 공연예술·시각예술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표현양식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술자원으로 보고 분포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양혜원 외, 2011: 31-32).

고양시는 핵심사업 중 하나로 2016년~2023년까지 70만㎡에 약 5,860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 고양 방송영상밸리>를 계획하고 있다. 신한류문화, 마이스(MICE)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방송시설, 문화시설, 상업복합시설을 도입하여 방송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고양시청 홈페이지²³⁾). 고양시가 <방송영상밸리>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영상예술자원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고양시에 분포하고 있는 영화와 방송에 관련된 항목을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영상예술자원의 조사대상은 영화관, 영화 제작 관련 사업체, 방송사, 방송 제작 관련 사업체로 구성된다.

문화순환주기 관점에서 영화관은 전시/발표/전승에 속하며 영화 제작 관련 업체는 생산/보급에 속한다. 방송사와 방송제작 관련 업체는 모두 생산/보급에 속한다. 방송사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때문이다.

23) 고양시청>생활정보>산업·소비자>고양테크노밸리프로젝트>핵심사업
(http://www.goyang.go.kr/www/03/www03_4/www03_4_2/www03_4_2_tab2.jsp) 접속일 2019.10.24.

[표 3-26] 영상예술자원 조사 지표

구분	내용	자료 출처
영화예술	영화관, (전시/발표/전송) 영화제작 관련 업체 (생산/보급)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경기도고양시기본통계
방송예술	방송사, (생산/보급) 방송제작 관련 업체 (생산/보급)	경기데이터드림 홈페이지, 경기도고양시기본통계

자료: 백선혜·라도삼·이정현,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와 분포특성』, 2015, pp.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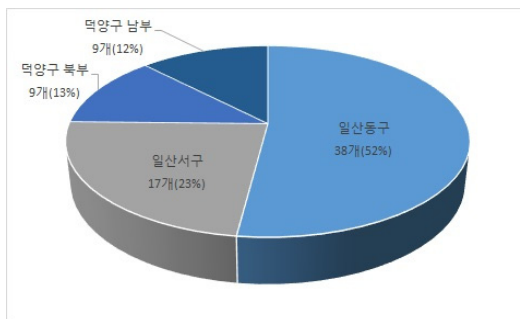
2. 영화예술자원 분포 현황

1) 영화관

고양시 소재 영화관은 10개이며 스크린 수는 73개로 조사되었다. 영화관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일산 동구 5개소, 일산 서구 2개소, 덕양구 남부 2개소, 덕양구 북부 1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산 동구 38개, 일산 서구 17개, 덕양구 남부 9개, 덕양구 북부 9개의 스크린을 보유하여, 일산 동구에 영화관과 스크린 수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양시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를 제외하고 체인 형태의 영화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0] 지역별 스크린 수



[그림 3-21] 영화관 위치 현황



[표 3-27] 영화관 분포 현황

영화 상영관명	스크린 수	좌석 수	위치	개관일
CGV 일산	9	1,794	일산동구 정발산로24	2007-03-28
메가박스 백석	8	1,374	일산동구 중앙로 1036	2012-12-22
메가박스 일산벨라시타	5	749	일산동구 강송로 33	2016-08-24
롯데시네마 라페스타(일산)	8	1,490	일산동구 무궁화로32-34	2003-07-17
메가박스 일산	8	1,103	일산동구 정발산로24	2007-07-11
메가박스 킨텍스	8	1,720	일산서구 호수로817	2010-09-09
롯데시네마 주엽(일산)	9	1,241	일산서구 중앙로 1436	2011-10-31
메가박스 고양스타필드	9	1,214	덕양구 고양대로1955(동산동)	2017-08-17
CGV 화정	8	886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28(화정동)	2012-09-13
(재)고양문화재단 고양영상 미디어센터	1	78	덕양구 어울림로 33 (성사동)	2010-09-01

자료:한국영화진흥위원회(<http://www.kobis.or.kr/kobis/business/mast/thea/findTheaterInfoList.do>) 접속일: 2019.10.24.

2) 영화제작 관련 사업체

2017년 기준으로 고양시 소재 영화제작사는 총 80개이다.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3개,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11개,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6개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총 530명으로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에 337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에 78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에 115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경기도 고양시 기본통계에 따르면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26개이고 종사자는 88명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에 소재하는 영화 배급사는 3개이고 8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제작사와 제작

관련 서비스사, 영화 배급사를 합하여 고양시에는 영화 관련 사업체가 109개, 종사자는 62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영화 제작 관련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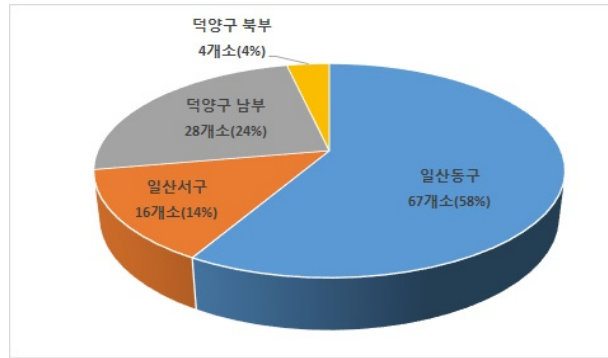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비고
영화 제작사	80	530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a),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b),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c) a, b, c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합계
영화 제작 관련 서비스사	26	88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²⁴⁾
영화 배급사	3	8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총 계	109	626	영화 제작사+영화 제작 관련 서비스사+영화 배급사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합계

출처: 고양시 기본통계 산업 세세분류별 총괄,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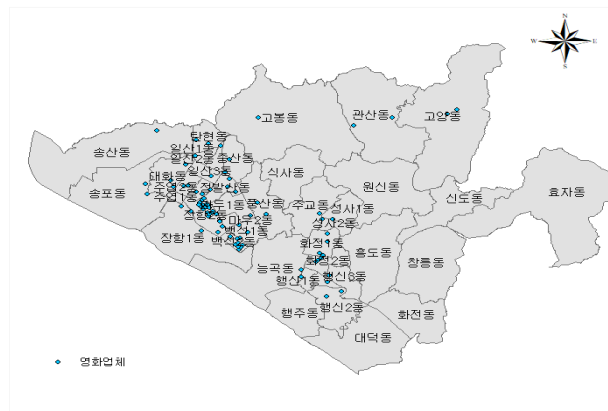
2019년 11월 기준으로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화 제작 관련 사업체를 살펴본 결과 사업체 수는 115개로 나타났다. 제작사 91개, 제작 관련 서비스사 12개, 배급사 6개소, 수입사 등 기타 6개소로 나타났다. 2017년에 비해 제작사와 배급사는 증가하고, 제작 관련 서비스사는 감소하였다.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일산 동구에 67개소, 덕양구 남부 28개소, 일산 서구 16개소, 덕양구 북부 4개소의 순으로 나타나, 영화 제작 관련 사업체가 일산 동구 중심으로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²⁴⁾ 원 자료가 영화 제작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 제작 서비스 업체에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체도 포함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영화와 방송을 모두 제작하는 서비스 업체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영화 제작 관련 서비스사로 보고자 한다(백산혜·라도삼·이정현, 2015: 147).

[그림 3-22] 영화 제작 관련 사업체 지역별 분포 현황



[그림 3-23] 영화 제작 관련 사업체 위치 현황



3. 방송예술자원 분포 현황

1) 방송사

고양시 소재 방송사 11개, 종사자는 1,190명이었다. 라디오 방송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상파 방송사 2개, 종사자는 733명으로 나타났다. 유선·위성 및 기타 방송사는 9개, 종사자는 457명으로 나타났다(2017년 기준).

[표 3-29] 고양시의 방송사 수와 종사자 수

	방송사 수	종사자 수
지상파 방송사	2	733
유선·위선 및 기타방송사	9	457
총 계	11	1,190

자료: 고양시. “기본통계 산업 세세분류별 총괄”, 2017.

2017년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고양시에 위치한 방송사들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EBS방송센터는 2017년에 일산 동구 한류월드로 281로 이전해왔고²⁵⁾, JTBC스튜디오는 2019년에 일산 동구 한류월드로 270에 예능전용스튜디오를 건설하였다.²⁶⁾ 따라서 고양시의 방송사는 13개로 조사되었다(2019년 기준).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일산 동구에 2개소, EBS 방송센터와 MBC 일산드림센터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산 서구에 1개소, SBS 탄현제작센터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위선 및 기타 방송사 보다 지상파 방송사의 수는 적지만, 종사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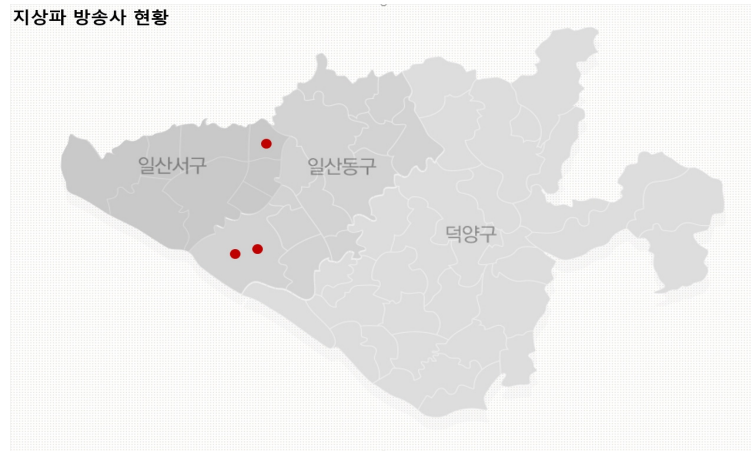
[표 3-30] 방송사 현황

구분	위치	개관일	비고
SBS 탄현제작센터	일산서구 탄현동 140	1995.11.	지상4층, 지하1층
MBC 일산드림센터	일산동구 호수로 596	2007.7.	지상10층, 지하4층
EBS 방송센터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2017.8.	지상20층, 지하3층
JTBC스튜디오일산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70 JTBC스튜디오	2019.4.	지상6층, 지하1층

25) “EBS 일산 신사옥 송출 개시”, 방송과기술(2017.9.07.), <http://tech.kobeta.com/ebs-%EC%9D%BC%EC%82%B0-%EC%8B%A0%EC%82%AC%EC%98%A5-%EC%86%A1%EC%B6%9C-%EA%B0%9C%EC%8B%9C/>. 접속일 2019.10.24.

26) “JTBC, 일산에 예능전용 스튜디오 건설”, 고양신문(2017.08.08.),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63>. 접속일 2019.10.24.

[그림 3-24] 지상파 방송사 위치 현황



2) 방송 관련 사업체

고양시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체는 44개, 종사자는 353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방송 관련 사업체는 총 4개로 종사자는 397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방송 관련 사업체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공급업체 3개, 종사자 396명이며, 뉴스 제공업체는 1개, 종사자는 1명이었다. 총 방송 관련 사업체는 48개, 종사자는 750명으로 조사되었다(2017년 기준).

[표 3-31] 방송사 및 방송 관련 사업체 현황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비고
방송사	13	1,190+α	라디오 방송업(a), 지상파 방송업(b),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c) a, b, c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합계
방송프로그램 제작 사업체	44	35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기타 방송 사업체	4	397	프로그램 공급업, 뉴스 제공업의 합계
총 계	61	1,940+α	방송사,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사업체, 기타 방송 관련 사업체의 합계

자료: 고양시. “기본통계 산업 세세분류별 총괄”, 2017.

제5절 생활문화자원 분포 현황

1. 주요 조사대상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생활문화 영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접근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문화자원에 초점을 맞추고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호)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박물관은 역사문화자원으로, 공연장과 미술관은 예술문화자원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생활문화자원에서는 도서관과 지역기반 문화시설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지역기반 문화시설에는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청소년문화시설이 해당한다.

생활문화자원의 경우 지역 주민이 문화예술을 창작, 생산/보급, 전시/발표/전송할 수 있는 복합적인 속성을 띠기 때문에 문화순환주기에 따른 별도의 구분을 하지 않고자 한다(백선희·라도삼·이정현, 2015: 158).

[표 3-32] 생활문화자원 조사 지표

구분	내용	자료출처
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경기도데이터드림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지역기반 문화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청소년문화시설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 백선희·라도삼·이정현,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와 분포특성』, 2015, pp.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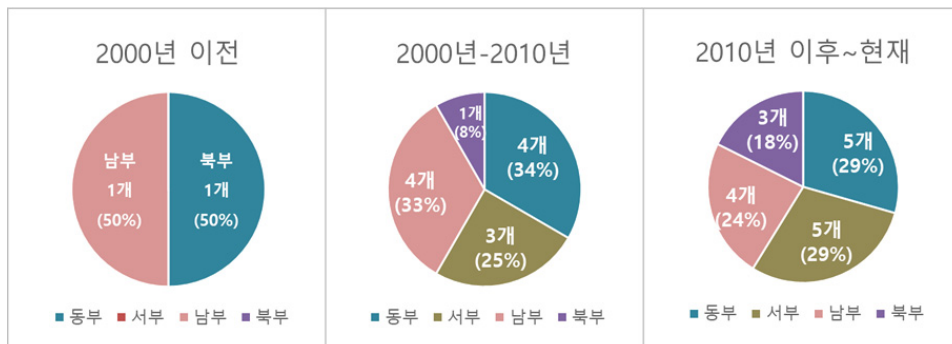
2. 도서관 현황

1) 공공도서관

(1) 공공도서관은 총 17개소, 사립은 없으며 모두 고양시가 직영하는 공립도서관

고양시에는 1994년 ‘고양시립행신도서관’이 설립된 이래로 현재 총 17개의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어 있으며 설립주체는 모두 고양시이며 모두 직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5] 고양시 공공도서관 설립시기별 누적 현황



[표 3-33] 고양시 공공도서관 권역별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공공도서관(전체) (일반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공공도서관(일반)			공공도서관(어린이)		
	전체 도서관 개소 수 ²⁷⁾	인구 수 ²⁸⁾	인구 10만명 당 개소수	일반 도서관 개소 수	인구 수	인구 10만명 당 개소수	어린이 도서관 개소 수	어린이 수 ²⁹⁾	어린이 인구 10만명 당 개소수
합계	17	1,059,340	1.6	14	1,059,340	1.3	3	94,998	3.2
동부권	5	294,668	1.7	5	294,668	1.7	-	24,889	-
서부권	5	302,533	1.7	4	302,533	1.3	1	28,549	3.5
남부권	4	265,283	1.5	2	265,283	0.8	2	20,245	9.9
북부권	3	196,856	1.5	3	196,856	1.5	-	21,315	-

고양시의 공공도서관은 현재 동부(5개소)·서부(5개소)·남부(4개소)·북부(3개소)권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 중 어린이 도서관은 총 3곳이 서부(고양시립주엽어린이도서관)과 남부(고양시립화정어린이도서관, 고양시립행신어린이도서관)권에 설립되어 있다. 하지만,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하고 살펴본 결과, 고양시 남부권의 공공도서관 수가 권역별 인구 10만 명 당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양시에는 사립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7) 경기데이터드림(<https://data.gg.go.kr/>) '도서관현황'(2019.04) 기준. 접속일 2019.10.25.

28)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2019.09) 기준 접속일 2019.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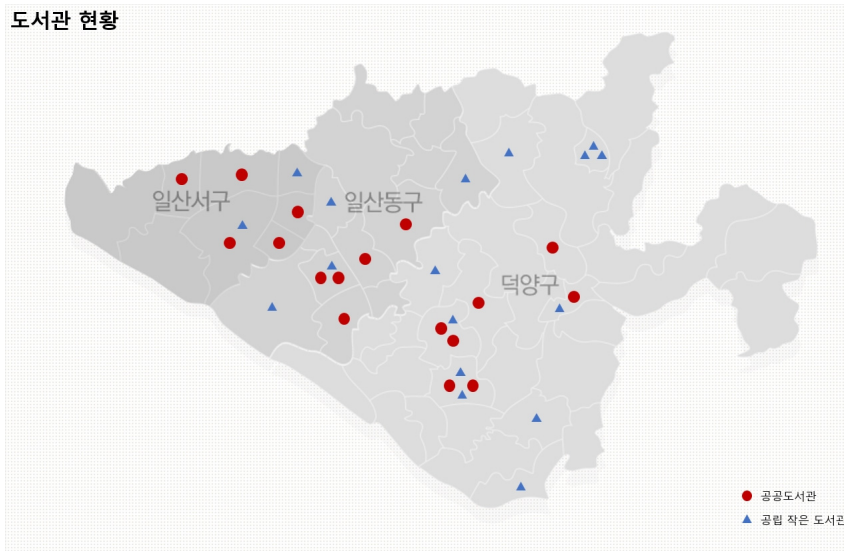
29)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24개월 이상 ~ 만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어린이 인구 수(2019.10) 기준

[표 3-34] 도서관 공간 특성 현황

구분		정보			교육 및 문화활동				
개관일	도서관명	자료실	열람실	시청각실	전시실	과학활동	회의실	동아리실/세미나실	교실
1994.05.11.	고양시립행신도서관	4	1	1				1	1
1999.05.27.	고양시립마두도서관	4	2	1					1
2002.01.18.	고양시립원당도서관	4	2						
2003.09.04.	고양시립 화정도서관	4	2	1			1		
2003.09.04	고양시립 백석도서관	5	1	1		1	1		
2007.06.22.	고양시립 아람누리 도서관	6			1			1	1
2007.06.27	고양시립 화정어린이 도서관	3						2	
2007.06.29.	고양시립 행신어린이 도서관	2			1			2	
2007.06.28.	고양시립 주엽어린이 도서관	3						2	
2008.03.20.	고양시립대화도서관	5	1	1	1			1	1
2008.03.21	고양시립한뫼도서관	4	1	1				1	1
2008.10.28.	고양시립풍동도서관	4		1					1
2012.02.02.	고양시립식사도서관	5	1	1				1	1
2012.05.18.	고양시립덕이도서관	6		1		1			1
2014.05.13.	고양시립 신원도서관	5	1	1	1				1
2014.12.23.	고양시립 삼송도서관	5	1	1				1	
2016.10.18.	고양시립 가좌도서관	4		2					1
합계		73	13	13	4	2	2	12	10

[그림 3-26] 도서관 위치 현황

도서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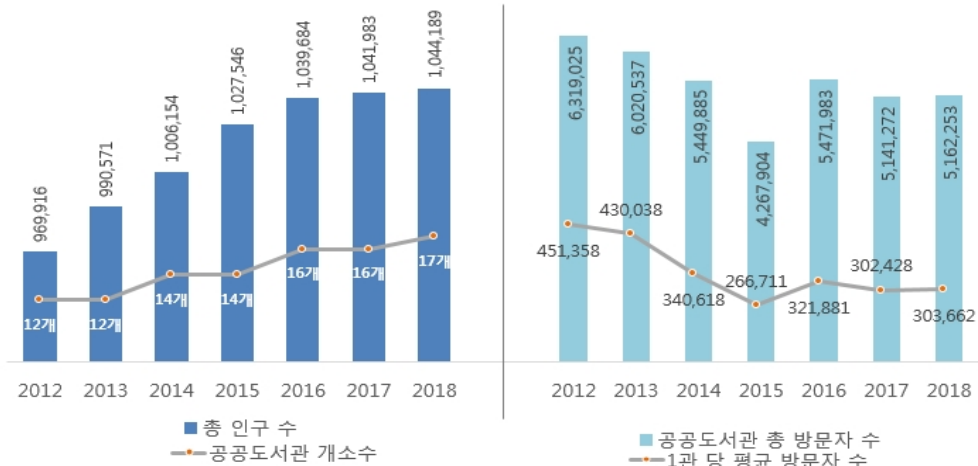


공공도서관이 과거에는 정보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현재는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의 거점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오영욱·김혜진, 2019: 294; 이승민·박종도, 2019: 122). 고양시에 있는 17개소 도서관의 공간을 전통적인 역할을 하던 정보(자료실, 열람실, 시청각실)와 교육 및 문화 활동(전시실, 과학활동, 회의실, 동아리실/세미나실, 교실)으로 구분하였다.

고양시 도서관의 공간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전히 자료실 및 열람실의 기능이 강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실이 73개, 열람실이 13개, 시청각실이 13개로 총 99개의 정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전시실이 4개, 과학활동이 2개, 회의실이 2개, 동아리실/세미나실이 12개, 교실이 10개로 총 32개의 교육 및 문화 활동 공간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양시 도서관은 고양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 또한 증설되고 있으나, 도서관 방문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양시민의 도서관 방문과 이용률을 증진시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고양시 도서관의 기능이 전통적 기능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거나 도서관의 공간과 기능을 복합화하여 고양시민의 방문을 유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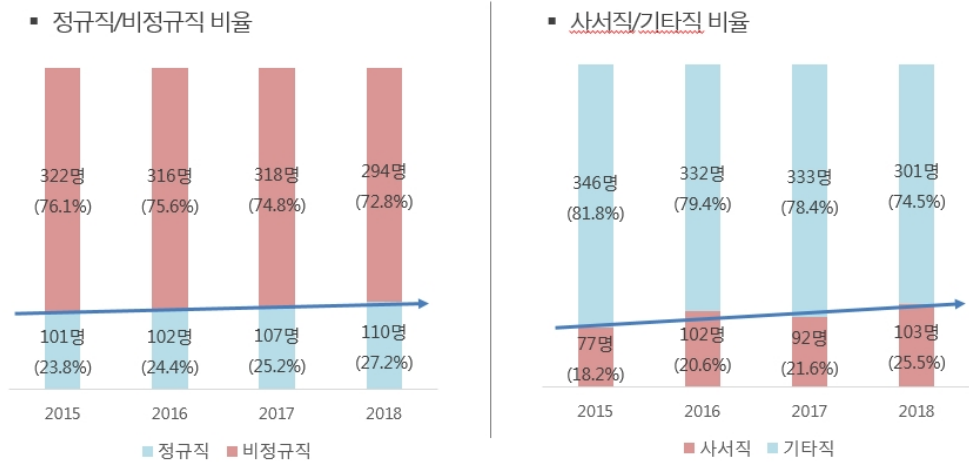
[그림 3-27] 공공도서관 수와 방문자 수 현황



(2) 공공도서관 운영 인력(정규직)은 평균 6.47명,

고양시 공공도서관 운영 인력 현황은 총 직원 수는 (2018년 자료 기준) 정규직 110명, 비정규직 294명으로 총 404명이다. 도서관 1개소당 평균 직원 수는 23명이며 평균 정규직 수는 6명, 평균 비정규직은 17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3-28] 도서관 운영인력 현황



고양시 공공도서관의 운영인력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정규직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직업의 안정성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서직이 점차 증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2015년에 101명(23.8%), 2016년에 102명(24.4%), 2017년에 107명(25.2%), 2018년에 110명(27.2%)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2015년에 322명(76.1%), 2016년에 316명(75.6%), 2017년에 318명(74.8%), 2018년에 294명(72.8%)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사서직은 2015년에 77명(18.2%), 2016년에 102명(20.6%), 2017년에 92명(21.6%), 2018년에 103명(25.5%)로 나타나 사서직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타 직은 2015년에 346명(81.8%), 2016년에 332명(79.4%), 2017년에 333명(78.4%), 2018년에 301명(74.5%)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3-35] 고양시 공공도서관 운영인력 현황

구분	도서관명	전체 운영인력 ³⁰⁾						자원 봉사자 수 ³¹⁾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사서직	기타	소계	사서직		기타
(전체)		404	110	48	62	294	55	239	10,175
1관 당 평균		23.76	6.47	2.82	3.65	17.29	3.24	14.06	598.53
동 부 권	고양시립 마두도서관	27	6	2	4	21	3	18	392
	고양시립 백석도서관	25	5	2	3	20	4	16	547
	고양시립 아람누리도서관	27	8	3	5	19	2	17	1007
	고양시립 풍동도서관	19	4	3	1	15	1	14	1174
	고양시립 식사도서관	36	5	3	2	31	3	28	82
서 부 권	고양시립 주엽어린이도서관	21	12	3	9	9	2	7	2767
	고양시립 대화도서관	27	8	5	3	19	4	15	795
	고양시립 한미도서관	20	5	2	3	15	2	13	836
	고양시립 덕이도서관	21	5	1	4	16	2	14	471
	고양시립 가좌도서관	21	4	3	1	17	4	13	3
남 부 권	고양시립 행신도서관	19	4	2	2	15	5	10	602
	고양시립 화정도서관	47	22	11	11	25	7	18	268
	고양시립 화정어린이도서관	18	4	1	3	14	3	11	596
	고양시립 행신어린이도서관	15	4	1	3	11	2	9	376
북 부 권	고양시립 원당도서관	14	3	2	1	11	3	8	20
	고양시립 신원도서관	31	5	2	3	26	5	21	113
	고양시립 삼송도서관	16	6	2	4	10	3	7	126

30)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 공공도서관 통계(2018) 기준. 접속일 2019.10.25.

31) 상동

2) 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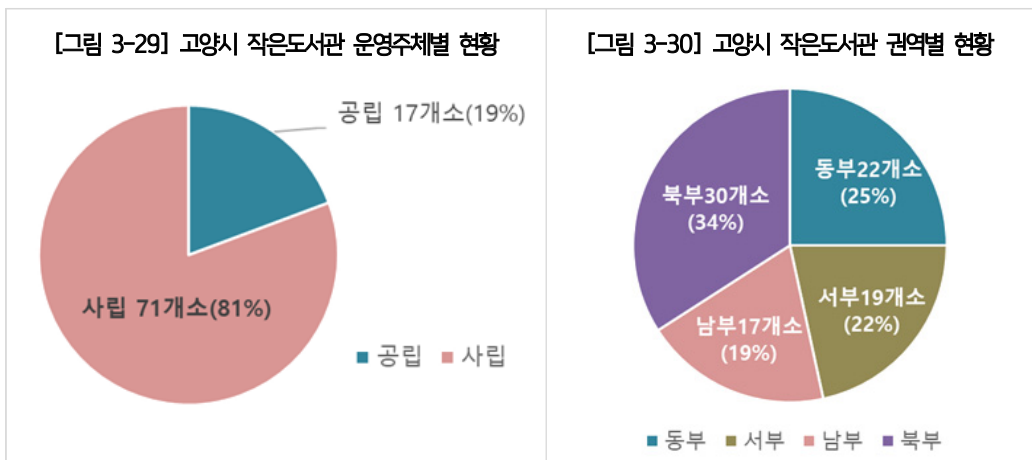
(1) 작은도서관은 총 88개(공립 17개, 사립 71개), 북부권에 가장 많이 입지

고양시 소재 작은도서관은 총 88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공립이 17개소(19.3%), 사립이 71개소(80.7%)로 고양시의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북부권의 작은도서관이 권역별 인구 10만 명 당 15.2개소 인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6] 고양시 작은도서관 인구 수 대비 권역별 현황

(단위 :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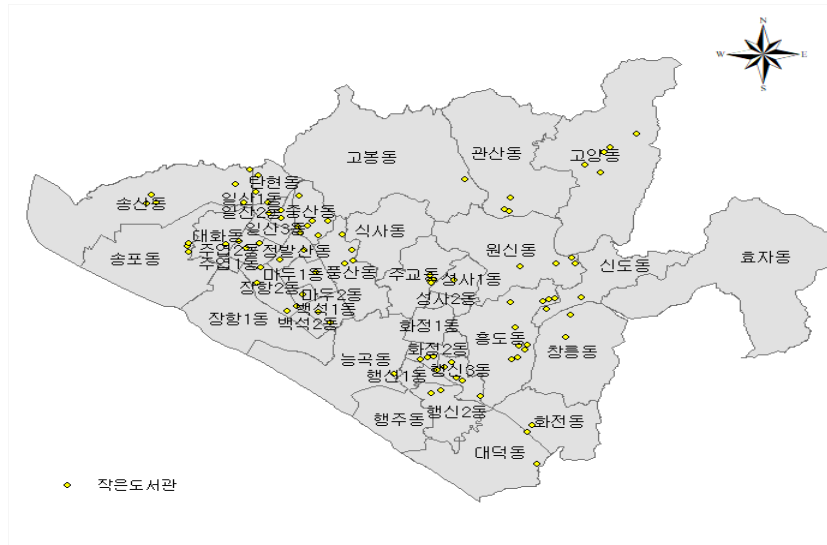
구분	작은도서관 ³²⁾			인구 수 ³³⁾	인구 10만 명 당 개소 수
	공립	사립	계		
합계	17	71	88	1,059,340	8.3
동부권	4	18	22	294,668	7.5
서부권	2	17	19	302,533	6.3
남부권	4	13	17	265,283	6.4
북부권	7	23	30	196,856	15.2



32) 고양시 도서관센터(<http://www.goyanglib.or.kr>) 현황자료(2019.10) 기준. 접속일 2019.10.25.

33)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2019.09) 기준. 접속일 2019.10.25.

[그림 3-31] 작은도서관 공립·사립 위치 현황



고양시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을 살펴보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작은도서관의 직원은 공립 17명, 사립 25명으로 총 69명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는 공립 58명, 사립 316명으로 총 374명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은 직원보다는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소 당 평균 인력 직원 수는 공립이 1명, 사립 0.7명으로 나타나 사립 도서관의 경우 직원이 한 명도 채 되지 않았다. 자원봉사자 수의 경우 1개소 당 공립은 3명, 사립은 4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3-37] 고양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현황

구분	직원			자원봉사자		
	공립	사립	전체	공립	사립	전체
총 인력 수	17	52	69	58	316	374
1개소 당 평균 인력 수	1.0	0.7	0.8	3.4	4.3	4.1

3. 지역기반 문화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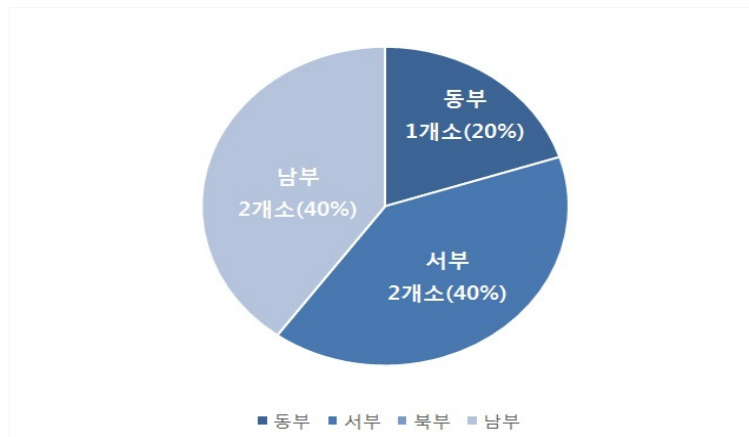
1) 문화시설 인프라

고양시에 구민회관은 없지만 문화시설 인프라는 잘 갖춰진 편이다. 문예회관 3개소, 지방문화원 1개소, 문화의집 1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고양시의 문예회관은 종합예술시설의 분포 현황에서 이미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간략하게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별로 덕양구 남부 2개소(40%), 일산 서구 2개소(40%), 일산 동구 1개소(20%), 덕양구 북부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문화원은 1984년에 설립되었으며 일산 서구에 소재한다.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문화행사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대부분이 어르신이라는 특징이 있다.

고양시문예회관은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덕양구에 소재한다.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운영 중이다. 고양어울림누리는 2004년에 설립되었고 덕양구에 소재하며,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고양아람누리는 2007년에 설립되었고, 일산 동구에 소재한다. 역시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2008년에 설립된 고양문화의집은 일산 서구에 소재하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운영 중이다. 운영 인력은 95명이며 댄스, 미술, 음악, 학습, 체험 등 200여 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연간 이용자 수는 378,855명으로 나타난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그림 3-32] 문화시설 인프라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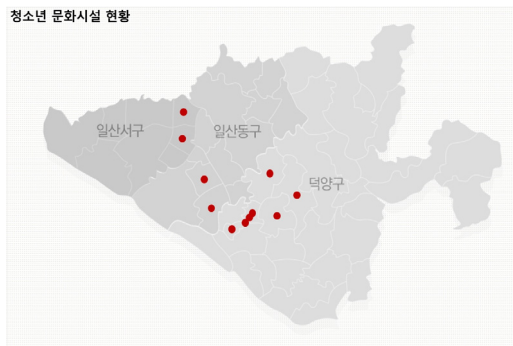
고양시의 문화시설 인프라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좋은 편이지만 시설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고양문화원은 전통 프로그램 위주로, 문예회관과 문화의집은 현대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하고 있다. 고양문화원과 문예회관, 문화의집이 분절적으로 각자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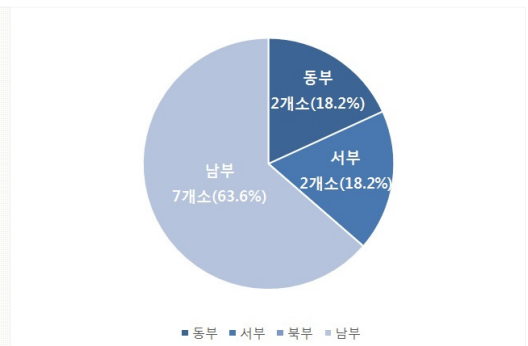
청소년 문화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진로센터, 청소년자유공간으로 구분 된다(고양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³⁴). 고양시에는 청소년 수련관 3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청소년진로센터 1개소, 청소년자유공간 4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덕양구 남부 7개소, 일산 동구 2개소, 일산 서구 2개소로 나타났고, 덕양구 북부에는 청소년 문화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양구 북부에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고양시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지역기반 문화시설과 청소년 공간 및 활동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림 3-33] 청소년 문화시설 위치 현황



[그림 3-34] 청소년 문화시설 지역별 현황



34) 고양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청소년시설(<http://www.gcyf.or.kr/>) 접속일 2019.10.24.

제 4 장

고양시 문화자원 특성 분석

제1절 고양시 문화자원의 유형별 특성

제2절 고양시 문화자원의 지역별 특성

제절 고양시 문화자원의 유형별 특성

1. 고양시의 역사문화자원

고양시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도시이다. 앞에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구분하고 고양시의 역사문화자원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박물관과 전통문화보전·전수시설인 국악원, 전수회관, 지방문화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박물관은 과거의 기록을 수집·보존하고 전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사문화자원으로 보았다.

고양시의 문화재는 총 139개(100%)이며, 덕양구에 102개(73.4%), 일산 동구에 31개(22.3%), 일산 서구에 6개(4.3%)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사문화자원의 소재지는 덕양구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박물관은 총 11개(100%)였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덕양구 북부에 5개소(45.5%), 덕양구 남부에 4개소(36.4%), 일산 서구에 1개소(9.1%), 일산 동구에 1개소(9.1.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고양시는 사립박물관이 7개소, 공립박물관이 2개소, 국립박물관 1개소, 대학박물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전시주체별로는 역사박물관 6개소, 자연사박물관 2개소, 과학기술박물관 2개소, 교육박물관 1개소의 순으로 나타나 역사박물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양시의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 1개, 경기도 지정 6개, 고양시 지정 6개로 총 13개(100%)가 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산 동구에 6개(46.2%), 덕양구 남부에 5개(38.5%), 덕양구 북부에 2개(15.4%)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산 서구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전통문화보전·전수시설은 국악원이 8개소, 전수회관이 1개소, 지방문화원이 1개소로 총 10개소(1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산 서구에 6개소(60%), 일산 동구에 3개소(30%), 덕양구 남부 1개소(10%)가 운영되고 있었다. 덕양구 북부에는 전통문화보전·전수시설이 1개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양시의 예술문화자원

종합예술시설,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예술로 구분하여 고양시의 예술문화자원 분포 현황을 살펴보았다. 종합예술시설은 문화예술시설 중에서도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고양시 문예회관,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공연예술은 고양시의 공연장을 살펴보고, 시각예술은 고양시의 미술관, 화랑과 갤러리, 경매소를 조사하였다. 문학예술은 문학관, 문학 관련 행사, 출판사와 인쇄소, 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예술자원을 종합해 보았을 때 고양시의 예술문화자원은 일산 동구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고양시의 종합예술시설인 고양시 문예회관과 고양어울림누리는 덕양구 남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고양아람누리는 일산 동구에 위치하였다. 지역적으로 덕양구 북부와 일산 서구가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양아람누리와 고양어울림누리의 공연 일수가 1년에 300일을 넘는 것에 비하면 고양시 문예회관의 공연 일수는 9일밖에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공연 일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고양시 문예회관의 공연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자원인 공연장은 규모에 따라 종합공연장, 일반 공연장, 소공연장으로 구분되며, 고양시는 일반 공연장 6개소, 소공연장 6개소, 종합공연장 3개소의 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2015년에 12개소였던 공연장이 2017년에 15개소(100%)로 증가하였는데 모두 민간시설에서 소규모 공연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장의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공공이 9개소, 민간이 6개소로, 고양시에는 공공 공연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일산 동구에 7개소(46.7%), 덕양구 남부에 6개소(40.0%), 일산 서구에 2개소(13.3%), 덕양구 북부에는 공연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산 동구를 중심으로 공연장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각예술자원은 미술관 3개소, 화랑과 갤러리, 경매소 25개소로 총 28개소(100%)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일산 동구에 13개소(46.4%), 덕양구 북부에 7개소(25%), 일산 서구에 5개소(17.9%), 덕양구 남부에 3개소(10.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산 동구를 중심으로 시각예술자원이 집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학예술자원은 문학관 2개소, 출판 및 인쇄업체 2,649개소, 서점 96개소로 총 2747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학예술자원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일산 동구에 1473개소(53.6%), 덕양구에 668개소(24.3%), 일산 서구에 606개소(22.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산 동구를 중심으로 문학예술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학과 관련된 행사는 4개가 개최되고 있었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덕양구 남부 2개, 일산 동구 1개, 일산 서구 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양시의 영상문화자원

고양시는 신한류문화와 마이스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방송시설, 문화시설, 상업복합시설을 도입하는 <방송영상밸리>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상예술자원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존의 영상예술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예술자원은 영화예술자원과 방송예술자원으로 구분된다. 영화예술자원은 영화관, 영화제작 관련 사업체이고 방송예술자원은 방송사, 방송제작 관련 사업체를 의미한다. 고양시는 종합하여 총 186개의 영상예술자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화예술자원 125개(100%)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일산 동구 72개(57.6%), 덕양구 남부 30개(24.0%), 일산 서구 18개(14.4%), 덕양구 북부 5개(4.0%)의 순으로 나타나 일산 동구를 중심으로 영화예술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영화제작 관련 사업체를 살펴보면 2017년에 80개였던 제작사가 2019년에 91개로 증가하였고, 3개였던 배급사가 6개로 증가하였다. 26개였던 제작 관련 서비스 사업체는 12개로 감소하였다.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일산 동구에 2개소, EBS 방송센터와 MBC 일산드림센터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산 서구에 1개소, SBS 탄현제작센터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EBS 방송센터가 이전해왔고, 2019년에 지상파 외의 기타 방송사인 JTBC가 JTBC스튜디오일산을 건설하였다. 종합하여

일산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분포하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고양시의 생활문화자원

도서관과 지역기반 문화시설로 구분하여 고양시의 생활문화자원 분포 현황을 살펴 보았다. 고양시에는 17개(100%)의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모두 공립이었고 사립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산 동구 5개소(29.4%), 일산 서구 5개소(29.4%), 덕양구 남부 4개소(23.5%), 덕양구 북부 3개소(17.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 도서관 3곳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고양시 남부의 공공도서관 수가 인구10만 명당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도서관은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점차 증설하고 있으나, 도서관의 방문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방문과 이용률을 제고시킬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고양시의 도서관은 전통적인 정보의 허브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교육과 문화 활동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편 도서관의 운영인력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은 조금씩 감소하고, 정규직은 조금씩 증가하여 고용 안정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직은 점차 감소하고, 사서직은 점차 증가하여 도서관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 17개소, 사립 71개소로 총 88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덕양구 북부 30개소, 일산 동구 22개소, 일산 서구 19개소, 덕양구 남부 17개소로 나타나, 덕양구 북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을 살펴보면 직원 69명, 자원봉사자 374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1개소 당 한 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1명의 직원도 채 배치되지 못하여 직원의 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양시는 문화시설 인프라 5개, 청소년 문화시설 11개로 총 16개(100%)의 지역기반 문화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덕양구 남부에 9개

소(56.3%), 일산 서구에 4개소(25.0%), 일산 동구에 3개소(18.8%)로 나타났고, 덕양구 북부에는 지역기반 문화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양구 북부는 문화시설 인프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균형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고양시 문화자원의 지역별 특성

1. 일산 동구의 특성

일산 동구(동부)는 역사문화자원에서 성석 진밭 두레패, 정발산 도당굿 등 향토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예술문화자원에서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고르게 보유하고 있어 공연예술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은 1개소였지만 갤러리와 화랑이 다수 분포해 있어 시각예술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예술자원에서는 출판 및 인쇄업체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서점의 수도 일산 동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북카페의 수도 일산 동구에 집중되어 있어 문학예술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문화자원에서는 영화관과 스크린 수가 집중되어 있었고, 영화제작 관련 사업체도 집중되어 있어 영상문화자원 역시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자원에서는 일반 공공도서관을 기준으로 일산 동구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도서관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에서 동부권이 전반적으로 문화자원이 풍부한 편이었고, 인력과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일산 서구의 특성

일산 서구(서부)는 역사문화자원에서 문화재나 박물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기 보다는 국악원이 주로 분포하고 있어 전통문화 보전 전수시설이 주로 입지해 있었다. 예술문화자원에서는 종합예술시설은 없었고 공연장도 소공연장 2개소에 불과하여 공연예술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예술자원에서도 특별히 두드러지는 특징이 없었고 문학예술자원에서는 서점이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예술자원에서 영화관은 2개소였지만 스크린의 수가 17개로 나타나 비교적 스크린 수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 서구에는 1995년부터 위치한 SBS 탄현제작센터가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고양시에서 서부권은 특별한 문화적 특징이 없는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부권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분포 자원 간의 연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덕양구 남부의 특성

덕양구 남부는 역사문화자원에서 유무형 문화재가 가장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 상여회다지소리, 경기소리 휘몰이잡가와 같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전통문화 보존 전수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문화자원에서 보면 덕양구 남부에 종합예술시설 2개소를 보유하고 있었고 규모에 따른 종합공연장, 일반 공연장, 소공연장도 고르게 보유하고 있어 공연예술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예술자원에서 미술관과 화랑, 갤러리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학예술자원에서는 송강정철문화축제와 다선문학예술제가 개최되어 문학 행사가 덕양구 남부에서 주로 열리고 있었다. 생활문화자원에서는 고양시 남부권의 공공도서관 수가 인구 10만 명당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기반 문화시설의 경우 청소년 문화시설이 주로 덕양구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남부가 가진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할 방안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하며, 도서관 접근성이 낮는데 작은도서관의 수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 설립 지원이 필요하거나 청소년 문화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덕양구 북부의 특성

덕양구 북부는 역사문화자원에서 유무형 문화재가 가장 풍부하며 박물관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서오릉과 서삼릉이 모두 북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통문화 보존 전수시설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문화자원에서 미술관 2개소가 덕양구 북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랑과 갤러리로 5개소가 위치하여 시각예술자원이 풍부한 편으로 조사되었다. 문학예술자원에서는 문학관 2개소가 모두 덕양구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고, 반면에 서점이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문화자원을 살펴보면 덕양구 북부에 영화관이 가장 적었고 영화 제작 관련 사업체도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영상문화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자원에서는 일반 공공도서관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개소수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여 도서관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작은도서관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양구 북부는 종합예술시설 및 공연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연예술시설이 부족하고, 청소년 문화시설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양시 북부는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보존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청소년 공간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4-1] 고양시 문화자원 유형별·지역별 특성분석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역사문화자원		•향토문화재 보유 (두레, 굿 등)	•역사문화자원 전승 보전 시설 주로 입지	•유무형 문화재 가장 풍부 •박물관 주로 입지	
예술 문화 자원	공연	•공연예술자원 풍부		•공연예술자원 풍부	
	시각	•시각예술자원 풍부			•시각예술자원 풍부
	문학	•출판인쇄업 집중			•문학관 보유
영상문화자원		•영화관 집중 •방송영상 관련 제작 사/배급사 집중	•영화관 집중		
생활문화자원		•도서관 접근성 높음		(남부권 도서관 접근성 미흡)	•도서관 접근성 높음 •작은도서관 집중 •청소년공간 부족
(권역별) 시사점		•동부권이 전반적으로 문화자원 풍부한 편 •인력과 시설이 집중	•서부권 문화적 특징 없는 편 •서부권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연계 방안 필요	•전통문화자원 활용 방안 다양화 모색 •남부권의 작은도서관 설립 지원 필요	•전통문화자원 보존 및 홍보 강화 •작은도서관을 청소년 공간으로 연계 활용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제절 결론

1. 시설이 아닌 공간의 성장 필요

문화자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문화정책은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서 문화기반시설 조성과 지역문화축제의 활성화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도서관,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등 역사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영상예술자원, 생활문화자원 모든 차원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기반시설의 성장이 아니라 문화공간의 성장 및 복합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반적으로 문화자원은 일산 동구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공간의 성장과 복합화를 통하여 문화자원의 지역적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2.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모색

고양시는 덕양구를 중심으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풍부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역사문화자원을 대한 태도는 문화유산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유도하며 점차 개방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물론 아직 뚜렷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숙종과 연관이 깊다. 북한산성을 쌓게 한 것도 숙종이며, 인현왕후와 숙종의 후궁인 장희빈의 묘도 고양시에 있다. 숙종 행차 기념 퍼레이드도 가능하며 북한산성 걷기 대회도 개최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역사문화자원을 관리할 박물관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고양시의 박물관 11개소 중 6개소가 역사박물관으로 구분되긴 하지만, 주로 민속품 전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금도 고양시 지역에서 수집한

유물은 발굴한 단체가 수집해가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출토된 유물이 고양시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 새로운 콘텐츠: 영상예술자원

영상예술자원은 민선5기 때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문화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상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해 제작지원작을 선정하고, CJ문화콘텐츠단지처럼 방송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신한류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방송영상밸리를 추진하여 방송영상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등 영상예술자원을 통해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고양시의 브랜드 상품을 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양시에 위치한 방송사 2곳의 이전 논의는 방송영상밸리를 추진하는 고양시에게 있어 시사점을 준다. 방송사가 입지했을 때 혹은 방송사를 유치할 때 고양시가 제안할 수 있는 문화적 이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던지고 있다. 고양시가 가진 영상예술자원들의 연계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작은도서관

예술의 영역과 별개로 시민의 생활문화와 연관된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고양시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도서관 시설 확충과 통합프로그램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와 더불어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대표하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덕양구 북부 위주로 증가되었고, 공립보다는 사립의 형태로 증가하였다. 그로 인해 고양시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직원의 수가 채 한 명도 되지 않았으며 자원봉사자에 운영을 맡기고 있었다. 작은도서관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도서관을 조성하여 공공도서관의 분관기능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중심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만들어졌다. 그러나 열악한 운영인력은 부실운영의 문제를 겪

을 수도 있으며, 실제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 중 상당수가 지나치게 작은 규모여서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운영인력에 대한 확보 및 전문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문화순환주기에 따른 시사점

이제는 고양시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실천이 필요하다. 문화순환주기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창작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발굴이 중요하며, 생산/보급에서는 예술인의 창작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양아트페어와 같이 문화예술의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영상방송산업의 육성을 통해 문화예술을 매체로 전달해야 한다. 전시/발표/전승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육성된 영상방송산업을 관련 축제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소비/참여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문화공간이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성장이 필요하며, 방송시설과 문화시설, 상업복합시설 등 시설 간 연계 및 공간의 복합화를 통해 문화향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제2절 정책 제언

1. 역사문화자원 보존, 관리, 홍보,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고양시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인 유무형의 문화재가 소실되지 않고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존하려는 정책적 노력으로서 2012년부터 미래유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고양시도 이러한 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 고양시의 문화재를 보존,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발굴된 문화재 뿐만 아니라, 새로이 발굴될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양시에서 출토되는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 박물관을 통해 전통문화자원의 홍보를 강화하며, 나아가 고양학 연구의 지원을 활성화해 갈 수 있을 것이다.

2. 고양시 예술인 실태조사의 정례화

본 연구에서 고양시에 있는 예술인들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심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고양시에 있는 예술인들의 창작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유통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한편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및 문화향유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고양시의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고양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 지역별 분포한 자원의 연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고양시와 방송영상산업의 연계 방안 모색

일산 동구 지역에 영화관, 영화제작 관련 사업체 등 영상문화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송영상산업과 일산 동구의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영화 및 영상 관련 축제를 기획하여 남북교류, 스포츠영화, 청소년 영화 등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고양시에 소재한 영화제작 관련 사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콘텐츠를 개발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방송영상산업 특화 지역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4. 도서관 공간의 복합화 등 지역의 문화공간 확대 필요

고양시에는 문화기반시설의 증설보다는 기존 시설들 간의 연계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문화시설이 아닌 기존의 유휴공간 등을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 카페의 활성화를 통해 독서모임과 문화프로그램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작은도서관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인력에 대한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서관은 더 이상 정보기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 활동,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양시에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도서관 공간의 복합과 기능 다양화 방안을 통해 지역의 문화공간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양시(2003). 『2001~2002 시정백서』.
- 고양시(2006). 『민선3기 고양시 시정백서』.
- 고양시(2010). 『민선4기 고양시 시정백서』.
- 고양시(2014). 『민선5기 고양시 시정백서』.
- 고양시(2016). 『2030년 고양시도시기본계획』.
- 고양시(2018a). 『민선6기 고양시 시정백서』.
- 고양시(2018b).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공약사업)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추진 계획(요약)』.
- 구선아·장원호(2018). “독립서점의 커뮤니티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 독립서점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51 : 93-123.
- 국립현대미술관(2018). 『2017 미술관 연보』.
- 김재환(2019).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유해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 내 빈집을 대상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9(6) : 747-755.
- 김정수(2017). 『개정2판 문화행정론』, 집문당.
- 김평수(2013). “MB 정부의 문화정책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과제”, 『문화 더하기 콘텐츠』, 2 : 19-33.
- 라도삼(2002). 『서울시 문화분포 현황 및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 라도삼(2007). 『서울의 문화자원 분포와 문화생태 연구』, 서울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19a). 『2017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현황통계 분석』.
- 박광무(2009).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정책기조와 초기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42(2) : 161-190.
- 배관표·이민아(2013). “한국 문화정책의 대상과 전략의 변화 1988~2012”, 『한국정책학회보』, 22(1) : 137-169.
- 백선혜·라도삼·이정현(2015).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와 분포특성』, 서울연구원.
- 양혜원·조현성·안주엽·임학순·김소영·신복용·강은영·김이레(2011). 『문화예술통계 중장기 발전 실행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양열(1995). “한국의 문화행정체계50sus -구조 및 기능의 변천과정과 그 과제-”, 『문화정책논총』, 7 : 29-74.
- 오영욱·김혜진(2019). “창의학습공간모델을 적용한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조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3) : 293-315.
- 원도연(2014). “이명박 정부 이후 문화정책의 변화와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인문콘텐츠』, 32 : 235-236.
- 원형희(2014). “한국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문화의 사회적 역할 연구 -문화적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민족미학』, 13(2) : 183-206.
-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6).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연구』.
- 유다희·차유진·최기현(2017). 『고양시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공공미술프리즘.

- 윤이덕(2012).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고양”, 『도시문제』, 47(519) : 6-9.
- 이병량·황설화(2012). “정책이념과 정책의 변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의 문화정책”, 『한국정책연구』, 12(3) : 255-270.
- 이승민·박종도(2019). “사회자본과 공유경제의 매개체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 『한국문화정보학회지』, 53(3) : 121-141.
- 이영아(2019). “우리나라 도시재생 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13~2018년 도시재생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공간과 사회』, 29(3) : 192-232.
- 이원재(2013). “박근혜정부 문화정책 분석 그리고 문화정책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 『문화정책 포럼 자료집』,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 임학순(1996). “문화정책의 연구영역과 연구경향 분석”, 『문화정책논총』, 8 : 1-27.
- 장영희(1996). 『서울시 문화지표 설정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 전영욱(2003). “도시 어메니티의 개선과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정철현(2006).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37(2) : 1-24.
- 진혜영·고재욱(2016). “문화기본법제정을 통해 본 문화정책 변화 탐색”,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2) : 97-117.
- 최혜실(2004).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예술”, 『월간 문화예술』, 1월호 : 22-27.
- 한국강구조학회(2007). “강구조 작품소개: 고양 아람누리”, 『한국강구조학회지』, 19(1) : 89.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지역문화지표 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2014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a).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1권) - 현황통계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b).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2권) -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문화지표 체계개선 : 2005 문화지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문예연감 2018』.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7). 『답사여행의 길잡이 9 - 경기북부와 북한강』. 돌베개.
- 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1995). 『문화지표체계개선』.

[해외문헌]

- Ho, Louis(2017). “Toward Cultural Policy Studies on Mobility: Reflections on a Study of the Hong Kong Working Holiday Scheme”, 『Cultural Studies Review』, 23(1) : 69-86.
- UNESCO(1969). 『Cultural Policy: A Preliminary Study』.
- UNESCO(1969). 『The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Unpublished paper). Bauer, Raymond.

[홈페이지]

고양문화재단>고양어울림누리 http://www.artgy.or.kr/oulim/oulim_introduction.aspx. 접속일 2019.10.23.

고양시 도서관센터 <http://www.goyanglib.or.kr>. 접속일 2019.10.25.
 고양시 문예회관 홈페이지 <http://goart.gys.or.kr/intro/infor.php>. 접속일 2019.10.23.
 고양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청소년시설(<http://www.gcyf.or.kr/>) 접속일 2019.10.24.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접속일 2019.4.15.~2019.4.16.
 김달진미술연구소 <http://www.daljin.com/?WS=51&area=4>. 접속일 2019.10.23.
 김영진 문학관 <http://kyj1225.godohosting.com/>. 접속일 2019.10.23.
 문화융성위원회 홈페이지 http://18pcce.pa.go.kr/01_info/01_why.html. 접속일 2019.4.15.
 올콘 공모전 대외활동 홈페이지(http://www.all-con.co.kr/uni_contest/436029) 접속일 2019.10.24.
 한양문고 홈페이지(<http://hanyangbook.com/>) 접속일 2019.10.24.

[기타자료]

경기데이터드림 <https://data.gg.go.kr/>. ‘도서관현황’(2019.04) 기준. 접속일 2019.10.25.
 고양시청>덕양구소개>가볼만한곳 http://www.goyang.go.kr/dygu/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067&q_clCode=1. 접속일 2019.10.21.
 고양시청>생활정보>산업·소비자>고양테크노밸리프로젝트>핵심사업 http://www.goyang.go.kr/www/www03/www03_4/www03_4_2/www03_4_2_tab2.jsp. 접속일 2019.10.24.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2019.09) 기준. 접속일 2019.10.25.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 공공도서관 통계(2018) 기준. 접속일 2019.10.25.
 문화체육관광부 운영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 <http://book.mcst.go.kr/html/system/index2.php>. 접속일 2019.10.23.

[법조례]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문예회관 사용 조례
 고양시 문예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보도자료]

- “고양시일산노인복, 제10회 어르신 백일장 성료” 법보신문(2019.06.24.)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871> 접속일 2019.10.24.
- “송포호미컬이 장항동에 새 동지”, 고양신문(2012.7.23.), <http://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접속일 2019.10.23.
- “제1회 한국다선문학예술제...고양시 문학축제로 자리매김 할 듯”, 신문고뉴스(2019.10.24.) <http://www.shinmoongo.net/131430>. 접속일 2019.10.24.
-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 발표”, 대한민국 정책프리핑(2018.05.16.)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832>. 접속일 2019.4.15.
- “COEX의 8배 규모 수도권 종합전시장 일산에 건설”, 한국경제(1999.04.28.),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1999042802891>. 접속일 2019.4.16.
- “EBS 일산 신사옥 송출 개시”, 방송과기술(2017.9.07.) <http://tech.kobeta.com/ebs-%EC%9D%BC%EC%82%B0-%EC%8B%A0%EC%82%AC%EC%98%A5-%EC%86%A1%EC%B6%9C-%EA%B0%9C%EC%8B%9C/>. 접속일 2019.10.24.
- “JTBC, 일산에 예능전용 스튜디오 건설”, 고양신문(2017.08.08.)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63>. 접속일 2019.10.24.
- “고양 송포호미컬이 전수관 20일 개관”, 고양신문(2007.7.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698295>. 접속일 2019.10.23.
- “고양시 15년사 진짜 최종수정”, 고양신문(2004.06.01.),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1>. 접속일 2019.4.16.
- “고양시도서관센터 동네서점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내일신문(2019.10.1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7984. 접속일 2019.10.24.
- “송강정철문화축제 31일 화정역광장서 열려”, 고양신문(2019.05.20.)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29>. 접속일 2019.10.24.
- “신동영 고양시장 호수공원 유료화 철회 안 해”, 중앙일보(1997.09.03.), <https://news.joins.com/article/3512130>. 접속일 2019.4.16.
- “정철문학 총집대성 고양 송강마을 송강문학관 개관”, 인천일보(1998.10.29.),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1>. 접속일 2019.10.23.
- “참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항상 무대 언저리에”, 한겨레(2012.02.28.), <http://www.hani.co.kr/arti/PRINT/521137.html>. 접속일 2019.4.16.

Abstract

An Analysis on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ultural Resources in Goyang City

Sunyoung Kwon*, Seolhwa Hwang*

The world is now transforming cities through culture. There are a growing number of cases around the world that transform old waste facilities or idle spaces into cultural places to revitalize local vitality and create local image and brand. And even in Korea, more people ar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ulture as to its contribution to the regional growth and development. “Cultural Impact Assessment” and “Cultural Urban Regeneration” are the proof of those. Goyang city also needs to accommodate these cultural view on establishing the policies and its execution for sustainable growth of the region.

Cultural policies of Goyang city seems to be focused on quantitative growth of cultural infrastructures from the late 1980s(the period of developing the first Ilsan New Town) to the mid 2000s. This would be effective in the developing period, but would it work for the next decade as well? To answer this ques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ltural policies of Goyang-si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resources so that a basic research is needed to clearly diagnose the current state. Therefore, this research implements the policy analysis, cultural resource investigation to suggest new approaches of cultural policies that will allow to

*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culturalize the region and the citizens's lifestyle.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resources in Goyang, we divided 'cultural resources' into four areas: historical resource, art resource, broadcasting and visual resource, life-living resource. In addition,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resources by region of Goyang, it was analyzed by the living zones in the east, west, south, and north of the cit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oyang City has abundant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mainly in Deokyang-gu, where is in the south and north of the city. The Plan to utilize and promote the historic resources, as well as the system and policies for preserving and protecting them, are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istory museum where the city manages its own relics excavated, and to support archeology research for the transmission and inheritance of historical resources.

Second, as a new cultural resource, broadcasting and visual resources are found to be an important part of Goyang city. Not only companies related to broadcasting and video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panies) but also movie theaters that the citizens can enjoy are mainly established in the eastern area(Ilsandong-gu). It is expected that these characteristics will be used to develop new tourism resources and foster brand products in Goyang.

Third, public libraries are mainly located in the eastern and western parts, which are the urban area of Goyang, and there are many 'Small Libraries' in the south and north, which are old or undeveloped areas of the city. In Goyang city, the number of library visitors is steadily decreasing (which is similar to the national trend), so it is necessary to find a policy to increase citizens' visit rate to libraries rather than building more libraries. For example, it may be possible to combine the existing spaces in the library and diversify the functions so that citizens can recognize and visit the library as a living and cultural space as well as a place to borrow or study

book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following directions and tasks of cultural policy are suggested. ① Growth centered on space, not expansion of facilities, ② Support for new cultural resources (e.g. broadcasting and visual resources), ③ Systematic archiving and utilization of existing cultural resource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④ Support for research on cultural resources, etc.